



경기문화재단, 도내 발달장애인 참여, 경기도 AI 음악창작단 성과공유회 성료

김동연 지사, 27일 도청 방문한 에릭 테오 싱가포르 대사와 면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지피티(GPT) 추진계획(로드맵)' 중 하나인 '경기도 AI 창작단'의 두 번째 시범사업 '경기도 AI 음악창작단'의 예술활동 교육 결과물 성과공유회가 지난 2월 28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경기도 AI 음악창작단'은 지난 2023년 상반기 '미술분야'에 이어,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도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플랫폼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명령어(프롬프트)를 활용해 원하는 예술창작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경기문화재단(대표 유인택)과 AI 활용 예술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융합예술단(대표 장순철), 장애인 예술단체인 JL한공예술단(대표 김영식)이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한 협업으로 전문인력 및 예술가가 매개자로 참여해 발달장애인과 함께 작품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발달장애인 36명이 참여해, 지난 11월부터 4개월간의 창작활동과 연습한 결과물을 실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여자들의 오프닝 연주 '힘내라 맑은 물'로 시작한 성과공

유회는 AI 창작 시연을 거쳐 발달장애인들의 AI 창작곡인 '올림', '바다의 노래', 'The Concert of GAIA' 등 총 3곡을 선보이며 성과공유회에 참석한 300여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

았다.

이날 성과공유회는 평소 장애인 예술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 바 있는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지면 축사를 통해 "기술의 진보가 가져다준 자유를 통해 문화예술과 행복을 향유하는 삶을 목표로 더 많은 장애인들이 한계와 제약에서 벗어나 마음껏 예술활동을 펼치고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지난 경기도 AI 창작단 '미술분야'에 이어 '음악분야'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차례의 시범사업을 통해 생성형 AI와 발달장애인, 그리고 예술가의 협업 가능성을 살펴 본만큼, 올해는 공모지원사업의 형식으로 장애인 등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보다 많은 AI 예술 창작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전남도, 현장행정 우수 읍면동 대상에 해남 화산면

따뜻하고 소통하는 지역사회 조성으로 높은 평가



전라남도는 현장행정 우수 읍면동 대상에 해남 화산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방자치 최일선인 읍면동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 밀착행정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현장행정 우수 읍면동 10개 기관을 선정·발표했다. 우수 읍면동 선정 부합성·창의성·효율성을 비롯해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중점 고려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사례발표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대상으로 선정된 화산면은 민·관·학 27개 기관 및 사회단체와 협업으로 '더불어 사는 화산면, 더(THE)행복한 면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참가자와 심사위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아침밥 먹기 캠페인, 꽃메칭춘합창단 결성, '땅끝 희망이' 자원순환 사업 등을 추진하며 따뜻하고 소통하는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여수 대교동과 완도 금일읍이 선정됐다. 대교동은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의 해답을 현장에서 찾는 종합행정 구현'을 주제로 행정과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찾아가는 이등민원실, 불법투기 현장 수시 순찰, 어르신 건강검진·정보화 교육 등 주민 행복 실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 호평을 받았다.

금일읍은 부속도서 환경 정화활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하는 봉사활동, 마을별 애로사항 청취 등 부속 도서민

의 생활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소통 행정을 추진한 점을 인정받았다.

우수상에는 목포 용해동, 순천 별량면, 무안 몽탄면이, 장려상에는 광양 봉강면, 담양읍, 고흥 대서면, 장흥 부산면이 각각 선정됐다.

강영구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읍면동은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공동체 운영에 반영하는 주민 자치 창구로, 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 읍면동을 발굴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16년부터 현장행정 우수 읍면동을 매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시군이 가진 역사·문화유산을 비롯해 주민 생활안정과 환경정화 등 도민 삶과 가장 밀접한 일선 현장행정 책임자 읍면동장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 사례를 널리 알려 주민 편의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박종배/기자



전라남도

경북도, 온종일 완전돌봄 정책회의로 저출생과 전쟁 승리 다짐

아픈아이 돌봄센터 등 완전돌봄을 위한 돌봄정책 전반 확대 논의

경상북도는 6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저출생 극복과 도와 22개 시군 업무 협력 체계 활성화를 위한 '2024 온종일 완전 돌봄 정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이철우 도지사가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이후, 저출생 극복 타개책을 마련하고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시군과 논의하고 현장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는 올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역점시책으로 경북형 공동체 돌봄모델인 '우리동네 돌봄마을'을 5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브랜드화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5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기존 돌봄 시설을 24시 돌봄운영체로 바꿔 시간을 전폭 확대하고, 차량운영, 안전·방법, 자원봉사 지도, 친환경 간식 제공 등 전면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현장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을 위해 시군과 의견을 교환하고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을 다졌다.

또한, 맞벌이 부부 등 가정이 불가피한 사유로 일과 시간 이후 아이 맡길 곳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아픈 아이 긴급 돌봄센터, 24시 마을돌봄터, 24시 시간제 보육(365 어린이집) 등 기존 돌봄 사업의 시간 연장 및 운영 확대로 돌봄 공백 발생에 사전 대비한다.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며 이용률이 높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돌봄인프라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 외에도 경북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영유아 보육·통합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 인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들의 비인지 역량 강화를 위한 '경북행복아이키움' 등 사업에 대한 시군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의견도 나누었다.

그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추진하는 우수사례 총 26건을 공유하고 그중 참



신하고 호응이 높은 3개 시군의 사례 세 부 내용을 공유했다.

회의에 참여한 시군 관계자들은 공유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 중인 돌봄 사업 운영의 질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끌어낼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최은정 여성아동정책관은 "경북은 보편적인 돌봄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상

과 시대 흐름에 맞는 틈새돌봄 지원으로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군에서는 저출생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경북이 주도하는 온종일 완전 돌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돌봄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고양특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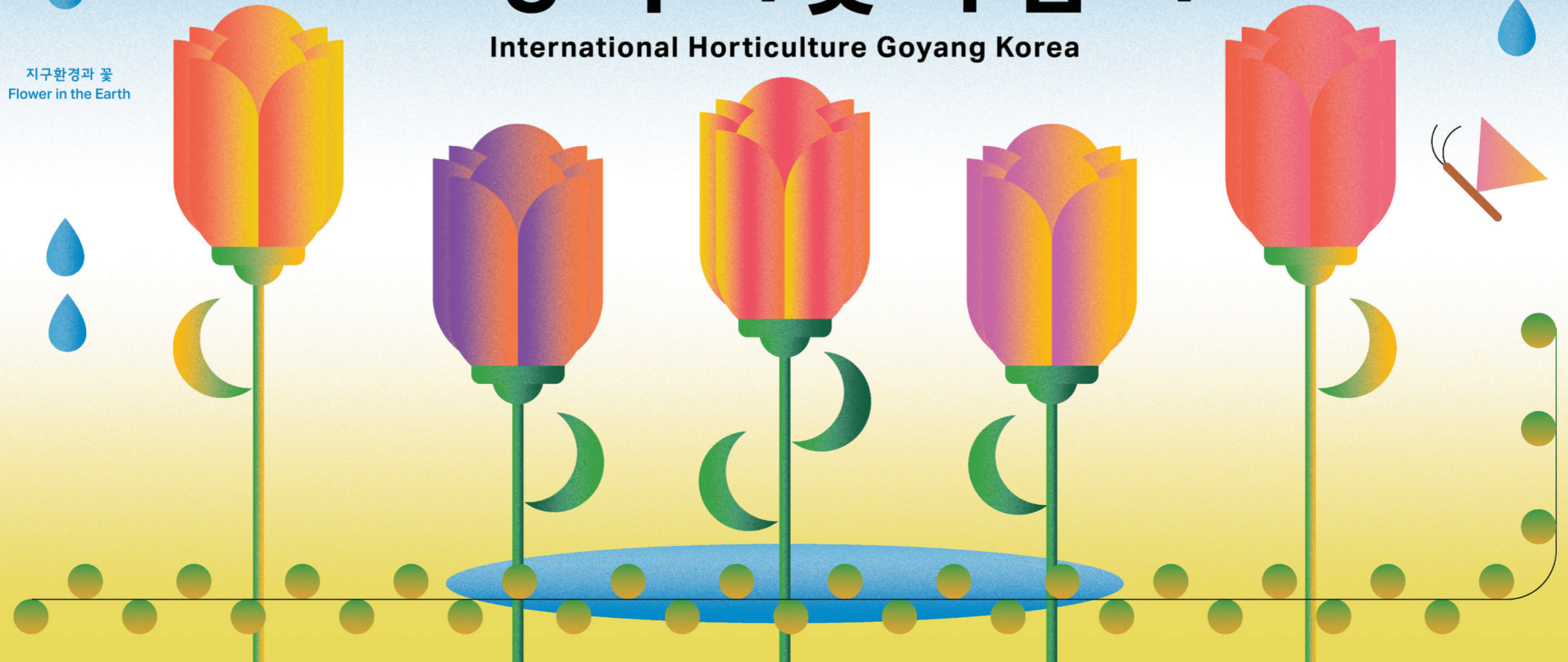
재단 고양국제꽃박람회 Goyang International Flower Foundation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

International Horticulture Goyang Korea

지구환경과 꽃 Flower in the Earth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도정발전·도민 삶의 질 제고 연구용역 펼쳐

경계지역 정책, 어린이 의료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과제 연구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가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 활동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 입법과 정책 제안 개발을 위하여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연구 모임으로서, 연구용역 추진을 비롯하여 토론회와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2023년에는 16개의 의원연구단체가 결성되어 세미나와 간담회를 개최했고, 14건의 지역의 현안과 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또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조례 제

개정 8건, 도정질문 5회, 정책방역 3건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정책 연구회'는 경북도와 각 시·군 담당공무원과 경계지역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와 전문가를 초청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낙후된 지역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열정을 펼쳤다. 특히 '경계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 및 관광자원 개발정책 연구'와 '지역콘텐츠 활성화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국 최초의 관련 조례('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 '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

를 제정했다. 그리고 '경상북도 어린이 의료정책 연구회'가 추진한 '경북 중소도시 어린이 의료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는 지역의 청소년소아과병원 부족 문제에 대하여 의료 협진을 통한 원격의료 시스템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여 올해 '김천의료원 어린이 원격협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또한 '꿀벌바이러스연구회'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꿀벌 실종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북지역 꿀벌바이러스병 발생 현황 조사 및 대응 방안 연구'를 통해 레이크시나 이바이러스(LSV)가 경북 지역 내 상당히 확산되는 문제를 발견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확인된 바 없었던 박순범 의원은 꿀벌 바이러스 확산과 새로운 바이러스 유입을 감시하고 연구할 꿀벌바이러스연구소의 설립 필요성을 제안하고 강조한 바 있다. 금년도에는 경북도의회의 정책연구 활동으로 지역개발, 역사문화, 교육정책 등 경북 도정을 견인할 정책개발과 도민들의 삶의 질 제고 등 더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위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 '경상북도 역사문화의 지속가능발전 연구회', '교

육거버넌스 정책연구회'는 각 분야별 심도 있는 연구 활동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상북도 해수담수화시설 발전연구회', '경상북도 도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대책연구회', '경상북도 지방세 연구회', '경상북도의회 풍수해 방재대책 연구회', '소상공인 지원 정책 연구회', '경상북도 학교폭력 정책연구회',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연구회', '농어촌 청년정책 연구회', '경상북도 미래 하수도 정책 발전연구회' 등 9개 연구단체가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다. 그동안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에서는 2022년 8건, 2023년 15건의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금년도 12개의 의원연구단체가 지방시대를 이끌어 갈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배한철 의장은 "정책의회로서 기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의원 정책연구회를 더욱 활성화 시켜가겠다."라며 "전문화된 의원 연구 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 제시를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남해군의회, 3월 정례 의원간담회 개최

남해군의회는 3월 6일 의정실에서 3월 정례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간담회에는 임태식 의장을 비롯한 9명의 군의원과 장충남 군수 등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해군의 주요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논의했다. 이날 의원간담회에는 △ 2024년도 3월 공모사업 신청 현황 보고 △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계획 △ 남해화폐 화전(花錢) 발행 및 특별판매 계획 △ 남해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현황 △ 2024년 남해군 도시재생 전문가 포럼 개최 △ 2024년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지원 사업 △ 상주면보건지소 진입로 및 주차장 확장 사업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 △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존속기한 연장 등 10건의 현안에 대한 집행부로부터 설명과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등 3건의 예산성립전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보고된 안전 중 2024년 남해군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에 대한 많

은 관심사항으로 시설별 사업공간의 중복여부를 잘 살펴서 낭비없는 효율적 공간구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살펴보고,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군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현황보고에 대해서는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으로 시니어 스포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의회 자체 현안과 관련해서는 제27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개최 계획 및 임시회기간중 현지확인 계획,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 계획,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남해군의회 의원과 공무원들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과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임태식 의장은 "환절기에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고, 따뜻해진 날씨만큼 해빙기 절개지등 안전 위험요소들이 많이 있으므로 공사현장들과 더불어 세심히 챙겨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윤준/기자



부산시의회 교육위, 동래지원청·영어교육거점센터 현장확인 나서

학교폭력 제로센터, 교권보호 통합민원팀 등 신설조직 및 학생배치 현안 집중 점검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부산시교육청 산하 주요 기관에 대한 현장확인 에 나선다. 신정철 위원장 등 7명의 교육위원회 의원은 3.7, '동래교육지원청' 및 '해운대영어교육거점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추진실태를 살피고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동래교육지원청'에서는 전반적인 지원청 업무와 함께 특히 올해 지원청 업무로 새롭게 신설된 '학교폭력 제로센터' 및 '교권보호 통합민원팀' 운영을 위한 준비사항을 점검한다. 또한, 이번 학기 부산 전체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지원청의 단위학교 지원 체계를 살피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현안사항으로는 '거제2구역 레이카운티 아파트' 및 '운천4구역 래미안포레스티지 아파트'의 학생 배치 및 통학안전 확보 방안에 대한 내용을 집중 점검한다. 레이카운티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말 입주 시작, 현재 74.1%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다>(*동래교육지원청 자료). 4,470세대인 매머드급 대규모 아파트임에도 학교 신설 없이 인근 학교인 창신초/거제초 배치되면서 그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발생했다. 교육위원회는 학생배치를 위한 증

개축 공사 추진상황 및 학생 배치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핀다. 창신초는 교육청 재원 및 조합 부담으로 26개의 교실이 증설됐고, 거제초는 8개 교실이 증설됐다. 현재 학교공간혁신 사업으로 추진중인 거제초 전면 개축 공사는 내년 11월 준공 예정이다. 통학버스 운영 등 통학 안전을 위한 계획도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9월 말 입주예정인 '래미안 포레스티지' 아파트 또한 4천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로, 아파트 입주로 인해 지난해 9월 기준 '금정초' 학생수는 991명에서 1,624명으로 증가하고, '운천초' 또한 952명에서 1,202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부채납을 통해 교실 증축이 이루어졌으나 전체학생 수용이 어려워 교육청 재원을 통해 모듈러교실이 사용 중이거나 설치 예정이다. 교육위원회는 이들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이다. 또한, 통학차량 지원에 대한 계획과 협업 실태도 확인한다. '해운대영어교육거점센터'는 2022년 10월 개관한 영어교육체험시설로, 옛 반송중학교에 위치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총 사업비 약 119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하여 1.2층은 '해운대



메이커교육체험센터'로 3.4층은 '해운대영어교육거점센터'로 활용을 하고 있다.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함양을 목표로 센터 1일 체험,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영어뮤지컬, 숙박형 인성영어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교육위원회는 기관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 및 시설 확인 및 인력 운용 실태를 살피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현장 직원의 의견을 청취한다. 신정철 위원장은 "단위학교의 행정 업무 지원 및 학생배치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지원청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

차원에서 현장확인에 나선다"며, "또한, 해운대영어교육거점센터 등 산하 체험기관이 기관의 설립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내실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희태/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홍성우위원장, 비회기중 울주도서관 공사 현장 점검 실시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홍성우 위원장은 6일 비회기중에 울주도서관 공사 현장을 찾아 공사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울주도서관은 올해 1월부터 현재 본관동(2,104㎡), 별관동(2,226㎡)의 내진보강공사와 본관 2~3층 북도공간을 갤러리카페로 새단장 중이다. 공사는 3월말까지 추진되며, 새로이 단장한 갤러리카페는 5월에 선보일 예정이다. 홍성우위원장은 "울주도서관은 서

울주지역의 대표적인 공공도서관으로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담당하는 메카 역할을 하고 있다. 금번 환경개선공사로 인해 이용자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홍위원장은 "최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이 중요하다. 꼼꼼하게 잘 살펴 안전사고 없이 공사가 잘 마무리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규진/기자



대구시의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향한 대구시의 도약!

박종필 의원, '대구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발의

박종필 의원(비례)은 제307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신산업의 발달로 반도체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3.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올해 2월 '신산업정책 2.0 전략'을 발표하고 반도체산업에서 팹리스와 소부장 등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약한 분야에 투자하여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할 계

획이다. 대구시도 미래 5대 신산업 중 하나로 반도체를 선정하고 반도체 분야 중 아직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양성 및 기업 유치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박종필 의원은 이러한 대구시의 반도체 육성 정책에 발맞추어 반도체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기업유치, 인력양성 및 마케팅 등 지원사업, 관련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 및 대학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종필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지역의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 회 부:내선 (113)	부 동 산 부: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 피 니 언 부:내선 (118)
	스 포 츠 부:내선 (115)	지 방 부: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힐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2024년 경기평화광장 운영계획 수립

도, 도민의 목소리를 담고 도정을 연계한 2024 경기평화광장 운영계획 마련

경기도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 평화광장에 '도민의 문화 향유로 가득한 경기평화광장' 비전과 함께 도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지난해는 문화예술공연, 도민마켓, 빛조형물, 스케이트장 등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7만 8,669명의 경기도민이 평화광장을 찾았다.

올해는 ▲소외계층과 장애예술인을 위한 행복한 참여의 광장 ▲기회소득 예술인과 청년을 위한 기회의 광장 ▲환경을 위해 다함께 그린(GREEN) 친환경 광장 ▲도민의 목소리가 담긴 평화의 광장 키워드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장애인, 청년, 기회소득 예술인 등이 참여하여 경기도민 모두에게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고 도정과 연계한 경기 RE100 관련 영화 상영과 1회용품 사용 안 하는 날 지정 운영, 친환경 제품 만들기 등 부대행사 추진 등을 통해 도민에게 기후위기시대 대응과 도민의 역할을 공유한다. 특히 설문조사 통해 수요가 높았던 도민마켓 프로그램은 판매인원을 확대하고 중고장터 등으로 확대, 운영하여 콘텐츠 내실을 다진다.

연간 프로그램은 문화예술 공연(15회/6~12월), 도민마켓(4회/6,9월), 야외영화상영(8회/6,9월), 갤러리 전



시(4회/4~12월), 모두의 동·식물 문화체험(2회/5월), 책 읽는 경기평화광장(2회/10월), 겨울빛 조형물 전시(60일/12월), 스케이트장(40일/12월) 등 8개 프로그램으로 모든 연령대가 참여하는 콘텐츠로 구성했으며 3월 중 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이다.

한편, 북부청사 지하에 마련된 '경기천년길 갤러리' 전시공간을 확대하여 기존 회화 작품 외에 조각 조형물 전시를 추진하여 도내 기회소득 예술

인에게 더 많은 전시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석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올해 평화광장 운영은 참여·기회·친환경·평화를 핵심 키워드로 연간 프로그램을 계획했고 도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여 공연, 전시,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한 만큼 도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최종현, 김호겸, 황대호, 한원찬, 이오수, 장한별, 이채영, 최승용, 김도훈 도의원과 함께 수원특례시 정책과제추진 논의

의정정책추진단·수원지역 도의원, 수원특례시와 머리 맞대고 56개 정책과제 살펴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5일 수원특례시에서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수원지역 정책과제와 도의회 차원의 지원사항을 논의했다.

의정정책추진단은 정담회에서 과제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실행에 뒤따르는 애로사항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두고 수원시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열린 정담회에서는 ▲수변공원 추진 및 도시 문화공간 확보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 및 확대추진 ▲군소읍 피해조사 및 보상 추진 ▲전통시장 시설개선 지원 ▲공원시설 확충 ▲공용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 확대 ▲경기도 청년정책 강화 및 청년정책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이 논의됐다.

논의 과정에서 최종현 위원장(민·수원7)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바닥형 신호등 설치 확대 추진"을 제안했고, 김호겸 의원(국힘·수원5)은 "반려동물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 추진"을 제안했다.

황대호 의원(민·수원3)은 "경기도 소읍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피해 실태조사 및 군소읍피해지역 보상, 법률지원 등 군소읍피해지역 지원사업 추진과 적극적인 예산 지원 확대"를 제안했고, 한원찬 의원(국힘·수원6)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과 통합주차장 신설을 위한 시설 환경개선"을 제안했다.

또한 이오수 의원(국힘·수원9)은 "호수공원내 분수대 및 체음·편의시설 등을 확충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원 조성"을 제안했고, 장한별 의원(민·수원4)은 "축구장, 야구장 등 내 노후화된 체육시설을 개보수하여 여가와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채영 의원(국힘·비례)은 "주거 취약계층으로 대두되는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 임대 오피스텔 지원"을 제안했고, 최승용 의원(국힘·비례)은 "생활 밀착형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고, 김도훈 의원(국힘·비례)은 "단기적인 청년정책이 아닌 전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경기도만의 청년지원정책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정윤경(민·군포1)·윤태길(국힘·하남1) 공동단장은 "오늘 논의된 56개의 현안들은 경기도민들의 더 나은 삶과 수원특례시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중

요한 사안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각 정책제안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 되도록 수원특례시와 협치를 통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윤태길 공동단장, 최종현, 김호겸, 황대호, 한원찬, 이오수, 장한별, 이채영, 최승용, 김도훈 수원특례시지역 도의원을 비롯해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도시정책실장, 영동구청장, 권선구청장, 장안구청장, 경제정책국장, 복지여성국장, 안전교통국장, 미래전략국장, 환경국장 등 5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지역별 의원들과 함께 오는 3월까지 31개 시·군을 순차적으로 찾아 지역 정책과제 해결책을 논의하고 정책을 발굴하는 과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김완규 위원장, "고양특례시-중국 북경자동차 4조원 대규모 투자협약 구체화에 힘 모을 것"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이 6일 고양상당소에서 '고양특례시-중국 북경자동차 4조원 대규모 투자협약 체결'을 환영하며 사업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는 오늘(6일) 중국 북경자동차와 4조원 대규모 전기차 생산 시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북경자동차는 향후 고양경제자유구역 내 약 200만㎡(60만평) 규모로 약 4조 원을 투자해 전기차 생산 및 판매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생산목표량은 연간 20만대 이상이며, 생산량의 90% 가량을 해외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협약을 계기로 고양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을 위한 첨단산업육성 기반을 확대하고 글로벌 자족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며 "올해 상반기 산업통상자원부에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고 이르면 하반기에 지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김완규 경제노동위원장은 "오늘 진행된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투자협약을 시작으로 유수 기업 유치를 통해 고양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을 위해서도 시 차원에서 적극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방기 위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경기도와 고양시의 역할에 대해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라며 "해당 지역의 부동산 안정 대책 마련 등을 준비하고 협약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와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도와 시의 소규모 활성화와 협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으로서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당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소통·교과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당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김범상/기자



Art Valley ASAN

시민과 함께하는
복합 문화예술플랫폼이
펼쳐집니다

고품격 문화예술 도시 아산
신정호 아트밸리를 품다

경기도의회 오석규 도의원, "경기 연계관광벨트 활성화 방안 찾았다"

29일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11개 관광벨트·7개 관광거점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도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연구회'는 29일 '경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연계 관광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지난 중간보고에서 발표했던 연구 내용의 고도화와 연계 관광자원의 구체적 활성화 방안을 점검하고, 연계관광벨트에서 제외된 시군에 대한 대책 등을 점검했다.

연구책임자인 신한대학교 박용민 교수는 DMZ, 한강, 도심권 문화체험, 도심권 힐링센터, 남·북부 역사문화, 해양, 지질공원, 레저, 도자문화, 성지순례 등 경기도 내 11개의 연계관광벨트와 고양, 부천, 안양, 수원, 포천, 남양주, 이천시 등 7개의 관광 거점도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역 간 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사람과 지역, 미래를 잇는 경기도 관광을 지향해야 한다"라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통합(자원의 가치 재창출) ▲지역 간 초월적 연계 실현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문화적 가치



창출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오석규 의원은 "숙박 의존도가 높은 관광 거점도시 선정은 그동안의 관광벨트 연구와 이질감이 있다"라며 "관광지에 방문하는 관광객 수를 기준으로 다시 분석해 거점도시를 선정, 관광벨트를 구상해보라"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연구회 회원들에게 "일년 동안 함께 해준 연구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하며, "과업의 납품일까지 최선

을 다해달라"고 연구진에 당부했다.

또한, 연구회 회원들은 숙박시설 확충 등 연계관광벨트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오늘 최종보고회에는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4)을 비롯해 박재용, 서성란, 오세풍, 윤종식, 이병숙, 이인규, 이혜원, 조용호 의원 등이 함께 했다.

김범상/기자

광주시, 생활밀착형 5대 우수 시책 선정

광주시는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생활밀착형 시책의 성과 창출과 확산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시는 민선 8기 시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2023년에 추진한 총 66개의 생활밀착형 시책에 대해 시민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를 거쳐 정책효과가 가장 컸던 '5대 우수시책'을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시책은 △시민 맞춤형 '콜챗봇' 민원상담 서비스 확대 운영 △시민 소통 양방향 메시지 서비스 구축 △광주 복지특공대가 됐다! △주차 스트레스 NO!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공유 주차 확대 △생활소음·비산먼지 저감 대책 사전 검토제 운영 등이다.

5대 우수시책 중 '시민 맞춤형 콜챗봇 민원상담 서비스 확대 운영'과 '시민 소통 양방향 메시지 서비스 구축'은 자동화를 통해 민원 처리를 개선한 시책들로 행정정보 접근성과 민원 업무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광주 복지특공대가 됐다!'는 찾아가는 복지 홍보활동단을 구성해 이웃 제보를 활성화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한 발 더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펼쳤다.

이와 함께 '주차 스트레스 NO!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공유 주차 확대'와 '생활소음·비산먼지 저감 대책 사전 검토제 운영'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차난 및 생활 불편 민원 감소에 일조하는 등 현실적 대안으로 인정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올해도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69개 사업을 발굴해 한층 더 발전된 '생활밀착형 시책 시

즌2'로 다가갈 것"이라며 "삶의 현장에서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광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의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여주시, 소규모 장날도 찾아가는 산불예방 활동 본격 실시!

강성삼 의장 "기후위기 대응위해 지자체 역할 중요,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할 때"



여주시가 2024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 대책본부(산림공원과 운영)를 설치하고, 주말과 휴일도 반

납한 채 산불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최근 지구 온난화, 강수량 감소, 강풍 등 기상 여건의 변화와 입산자의

부주나 불법소각 등으로 인하여 대형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여주시 또한 주·야간에 산불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경각심이 필요할 때이다.

이에 여주시는 지난 2월부터 황학산 수목원, 대단지 전원주택단지, 강천보, 마을 경로당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라도 달려가 홍보를 실시했으며, 작년과 같이 "산불! 예방만이 최선"이라는 전략을 유지하고, 3월 1일 가남읍 장날 및 3월 5일 여주 장날 한글시장 입구에서 외지인과 여주시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2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법소각 등을 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하는 등 "산불로부터 내고

향 스스로 지키기" 토대가 조금씩 쌓

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또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적극 홍보한 결과 이·통장님들을 중심으로 226개 마을이 서약에 동참(23년 173개 마을)했으며, 산불 발생 취약지역에 산불 예방 계도 현수막 설치, 산림 인접지 인화물질 제거 홍보, 농경지의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예방을 위한 파쇄기 임대사업, 농산폐기물 일제수거 활동 등 산불 예방 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여주시장(이충우)은 "주민들로 하여금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중한 자연을 지키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수원 구 부국원 역사와 교통 일원 발굴 유적 볼 수 있는 전시회 열린다

수원 구 부국원, 2024년 상반기 기획전시 '수원 교통유적: 구 부국원 발굴 이야기' 개최

수원시는 '수원 구 부국원'에서 2024년 상반기 기획전시 '수원 교통유적: 구 부국원 발굴 이야기'를 6월 30일까지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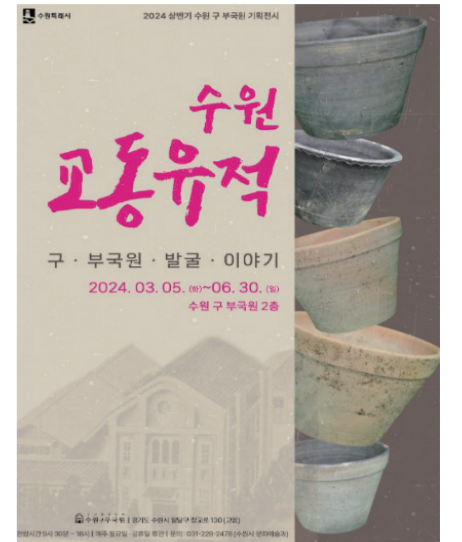
2020~2021년에 발굴조사가 진행된 수원 교통유적의 발굴 성과와 일제강점기 부국원의 원형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볼 수 있다. 수원 구 부국원의 역사를 소개하고 부속시설의 관련 기록·그림·사진, 발굴조사로 확인된 유물 등을 전시한다.

국가등록문화유산 부국원(富國園)은 1915년 이하라 고로베(伊原五郎兵衛) 외 7명이 설립한 회사로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에서 종묘와 종자를 공급받아 판매했다. 수원역 앞에서 영업을 시작했고, 수익이 늘어나자 1923년 현 위치(팔달구 학교로 130)에 본사 건물을 신축해 운영했다.

전국적인 판매망을 보유했던 부국원은 수원 본점 이외에도 경성(현 서울) 명동과 일본 나가야현(名古屋)에 지점을 두고, 일본 나가노현(長野) 등지에 출장소를 운영했다.

1930년대 발간된 자료에는 부국원이 본관 외에도 창고 3개 동과 온실 등을 보유한 300여 평(약 990m²) 규모였고, 종자부·묘목부·농구잡화부·비료부 등 6개의 부서를 운영했다는 기록이 있다. 부국원이 매우 번영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해방 이후 부국원 본관은 '수원법원·경찰 임시청사(1952~1956)', '수원시 교육지원청(1950년대 말~1963년)', '공화당 경기도당 당사(1960~1970년대)' 등으로 활용됐다. 1981년부터 '박내과의원'으로 오랫동안 사용됐고 2000년대 한술문화사 등으로 이용되며 수원의 현대사를 함께했다. 개인소유였던 부국원 건물



이 개발로 인해 2015년 철거 위기에 놓이자, 수원시가 매입해 복원했다.

수원 교통유적은 수원시 팔달구 교동 주상복합빌딩 신축 사업이 진행되며 해당 지역 내 부국원 부속시설과 관련된 유적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조사가 이뤄진 지역이다.

조사 결과 온실 2개 동, 창고 1개 동, 육묘유구(育苗遺構, 모내기 전까지 모종을 육성하는 장소) 26기, 배수로 1기 등과 토기·도기류 55점, 금속류 2점이 발굴됐다. 일제강점기 부국원의 종자·종묘 재배와 판매를 위한 부속시설의 양상을 확인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유적에서 발견된 온실과 육묘장 그리고 출토 유물들은 근대 수원 농업문화 연구에 귀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라며 "이번 전시로 부국원의 역사와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시민들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신상진 성남시장, "공정·투명한 행정을 위한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

간부 공무원 '청렴 실천 다짐' 선언...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교육생 모집 홍보 강화 지시

신상진 성남시장은 6일 확대간부 회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간부 공무원들이 청렴 리더로서 솔선수범하여 청렴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공직사회에 청렴 문화가 확산되어, 공무원들이 시의 청렴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4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과 출자·출연기관 대표들은 오히려 실천할 청렴 메시지를 직접 작성하여 다짐하는 '청렴 실천 다짐' 선언을 진행했다.

신 시장은 "정부의 1기 신도시 재

건축 선도지구 공모 일정이 5월로 예정되어 있다"면서 "성남시는 재건축 동의율이 80%를 넘어서는 단지가 다수 있고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 또한 매우 크므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민간 합동 TF'를 통해 이주단지 부지 확보, 선도지구 선정 절차 기준 마련 등 산재한 과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올해 3년 차를 맞은 시스템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은 작년보다 70명 증가한 100명으로 확대한 만큼 대학가를 비롯해 판교테크노밸리 등 청년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강화하라" 지시했다.

신 시장은 "주야간 시간제 보육시설인 해님 달님 놀이터는 영유아 양육 가정의 워라밸(일과 생활 균형)을 돕는 새로운 대안이 되면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올해 구별로 1곳씩 총 3곳 확충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3월 30일 GTX-A 성남역 개통에 따라 이달 22일부터 성남역을 경유하는 6개 노선에 시내 및 마을버스 88대 확충이 차질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성남역 개통 이후에는 시민 이동 상황을 모니터링해

버스노선 증감 여부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범상/기자



안양시 '함께 키워요'...세쌍둥이 가정 2곳 기업 지원 연계 및 축하 방문

최대호 시장, 애로사항 청취 '양육 어려움을 꼭 필요한 정책으로 발전시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안양시 세쌍둥이 가정 2곳이 관내 기업으로부터 매월 30만원씩 3년간(총 1080만원) 자녀축하금을 지원받는다.

6일 안양시에 따르면, 최대호 안양시장과 관내 기업 (주)한라식품 농업회사법인 황인경 대표, (주)지온메디텍 박종철 대표는 이날 오후 만안구 석수동의 세쌍둥이 가정과 동안구 호계동의 세쌍둥이 가정 2곳을 방문해 자녀 축하금 전달식을 갖고 소중한 세쌍둥이의 출생을 축하했다.

만안구 석수동의 방문 가정은 첫째에 이어 지난해 4월 세쌍둥이(서운·서준·도윤)를 출산해 총 4명의 아이를 둔 다자녀 가정이다. 지난해 12월 안양시로 이사를 와 아이들과 생활하고 있다.

동안구 호계동 가정은 지난해 12월 첫 출산으로 세쌍둥이(루하·루나·루다)를 맞아 다자녀 가정이 됐고, 안양시 출산지원금 총 1600만원을 지원

받는 주인공이 됐다. 첫남반이용권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등도 이용하고 있다.

안양시는 출산 및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지난해 출산지원금을 2배 인상했다.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부터 1000만원을 가정에 분할해 지급한다.

이날 최 시장은 축하와 함께 양육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겪는 여러 어려움을 꼭 필요한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관내 기업에서 아이의 출생을 함께 축하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뜻을 모아주셨다"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지역사회 안에서 소중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이동환 고양시장, "시민 소통·현장 행정 최우선"

민원 해결 직접 나선다... '시민과 함께하는 직소 민원의 날' 정례화 계획



이동환 고양시장(이동환)은 6일 간부 회의에서 민선8기 시청 목표 중 하나인 '시민 우선 소통 시정'을 1순위

로 두고,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적극 행정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지난주 '시민과 함께하는 직소 민원의 날'을 개최해 시민들의 실질적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현장을 찾아 큰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인 만큼 앞으로 직소 민원 창구를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7일부터 약 한 달간 민선 8기 핵심 공약과 정책 사업에 관련된 주요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사통팔달 교통허브 구축과 주민 맞춤형 재건축,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시민 체험형 정책사업 추진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민선8기 공약사항은 시민과의 중요한 약속인 만큼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해 주기 바

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과 관련하여 "앞으로 우리 시는 창의력과 미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교육기관과 첨단사업 일자리를 연계하는 공교육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고양시가 역점 공모사업이나 각종 특구사업을 유치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 시장은 "최근 아파트 화재 등 다중이용시설 사고 발생으로 인명, 재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대비 훈련이나 시설 안전 점검 등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영기/기자



첨단드론산업 인프라 도시 이천을 위한 이천시-육군정보학교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이천시와 육군정보학교는 5일 육군 정보학교에서 이천시 드론산업 발전과 방산기업 유치 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김경희 이천시장과 지원정 육군정보학교장이 만나 이천시 드론산업분야 및 지역발전의 공동목적을 위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시민 및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여 첨단드론도시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이천시의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 도출과 드론산업 확장에 상호협력할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드론산업의 초석을 위한 드론 전문인력 양성, 시민이 자유롭게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드론평화공원 조성, 방산기업 유치와 국방드론 연구·실증을 위한 비행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및 지역축제와 연계한 군 합동 페스티벌 공동개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천시는 드론비행금지구역 제한으로 인해 드론 및 비행체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드론공원 및 비행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이천시와 육군정보학교는 정기적 실무회의를 진행해 업무협약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시민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안을 계속 도출하여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원정 육군학교장은 "그동안 정보학교가 쌓아온 드론 인프라를 이천시와 공유하고 드론산업의 중심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실무회의를 통해 논의한 과제들을 상호협력하여 드론으로 특화된 이천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육군정보학교와 손잡아 상호협력하여 드론 산업뿐만이

있는 드론 방산기업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하남시, 공공도서관 독서율 전국 '톱 10' 비결은?

북부녹색어머니회 청소년 자녀 14명 대상

하남시 내 공공도서관의 독서율이 전국 '톱 10' 안에 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하남시에 따르면 도서관 정보나루(도서관 빅데이터 시스템)를 통해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독서율을 확인한 결과, 하남시 공공도서관의 독서율은 4.91%로, 전국 221개 지자체 중 9위(수도권 전체 2위)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독서율은 공공도서관에서 일반독서를 1권 이상 읽은 사람의 비율(대출회원수/전체회원수)을 의미한다. 공공도서관 전체 회원 중 실제로 책을 대출하는 회원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가능할 수 있는 지표로 평가받는다.

하남시의 공공도서관 독서율은 2020년 3.06%, 2021년 4.53%, 2022년 4.91%로 해마다 지속해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공공도서관 평균 독서율(2020년 0.99%→2021년 1.14%→2022년 1.16%)과 비교해서도 상승폭이 월등히 높았다. 또한 최근 조사인 2022년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전국 평균(1.16%)과 비교해 약 4.2배 높았다.

이번 결과는 하남시가 '책으로 성장하는 시민중심 지식문화도시 구현'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한 도서관 인프라를 조성한 데 따른 성과로 분석된다.

하남시는 ▲인문학 특성화 사업 및 독서활동 지원행사 등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제공 ▲꿈꾸는 도서관 학교 및 독서문화예술 자유 사업 등 독서 기반 지역 협력사업 운영 ▲신장도서관 리모델링 준공 등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아울러 영유아의 최초 독서 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북스타트 사업 등을 통해 영·유아와 어린이의 독서량을 늘리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하남시 공공도서관의 독서량(대출회원 1명이 읽은 일반도서관의 권수, 대출권수/대출회원수로 표시)을 보면 2022년 기준 영유아(0~5세)의 경우 38.6권으로 전국 평균(33.7권)과 비교해 4.9권 더 많았다. 또한 유아(6~7세)는 44.7권으로 전국 평

군(36.4권) 대비 8.3권, 초등학생(8~13세)의 경우는 34.2권으로 전국 평균(28.1권)에 비해 6.1권 더 많았다.

이와 함께 2023년 하남시 공공도서관 대출 데이터 155만여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장 많이 대출된 책은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 2'(나무옆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서관대출 2위는 정지아 작가의 '아버지의 해방일지'(창비), 3위는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 1'(나무옆의자)이 차지했다.

4~10위에는 '달려구트 꿈 백화점'(이미에, 팍토리나인), '(추리 천재) 엉덩이 탐정 10'(트리플, 미래엔아이세움), '완전한 행복'(정유정, 은행나무), '파친코'(이민진, 문학사상),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1'(송희구, 서삼독),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2'(송희구, 서삼독), '역행자: 돈·시간·운명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는 7단계 인생 공략집'(자청, 웅진씽크빅)이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상호대차 서비스'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호대차 서비스는 도서관별 소장도서관을 도서관 어디서나 자유롭게 대출·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하남시의 상호대차는 지난 2021년 10만1천875건에서 2023년 15만3천794건으로 2년 만에 51.0%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호대차가 활성화되면 장서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도서관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도서관별 특화 도서 중점 배치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 미사·신장·나루·위례·세미·일가·덕풍·디지털도서관 등 8개 공공도서관이 '책으로 성장하는 시민중심 지식문화도시 구현'을 모토로 다채로운 정책을 시행한 결과가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라며 "우리는 오는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어린이 영아특화도서관을 건립하는 등 앞으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도서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범상/기자

용인특례시, 중기 4사 'MWC 2024'서 346만 달러 계약 성과

세계 최신 첨단기술 각축장서 차별화된 기술로 두각...시 지원 수출인턴 활약도

용인특례시는 'MWC(Mobile World Congress) 2024' 용인시 공동관에 참가한 이모션웨이브(주) 등 중소기업 4사가 현지 바이어와 651만 달러 규모 상담을 통해 346만 달러 규모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달 26일부터 29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정보통신 전시회 'MWC 2024'에서 이모션웨이브(주), 팀플레이어, (주)엑션테크, 엔디에스솔루션(주) 등은 최신 첨단기술을 선보이며 전 세계 기업들과 경쟁을 벌이며 차별화된 기술로 두각을 나타내 이 같은 성과를 냈다.

수지구 상현동 소재 이모션웨이브(주)는 지능형 사물인터넷을 뜻하는 AIoT(AI of Things) 기술 등을 활용해 인공지능 콘서트 시스템인 RIMA를 드럼에 접목하는 등 가상공간에서의 악기 연주 플랫폼을 선보여 현지 바이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386만 달러 규모 상담(26건)을 해 220만 달러 규모 계약을 앞두는 등 용인관 참가 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적을 올렸다.

이모션웨이브(주)는 이번 전시에서 바르셀로나 뮤직테크 허브와 분점(Branch) 설립 등에 관한 MOU를 추진하는 한편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관계자와도 공동 연구를 위해 실무적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흥구 동백동 소재 팀플레이어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대량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기업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유럽 전역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GetWiFi와 제품을 시범 적용기로 협의하는 등 138만 달러 규모의 수출 논의(26건)를 해 45만 달러 규모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기흥구 영덕동 소재 엔디에스솔루션(주)는 다국어로 음성 안내를 해주는 키오스크를 선보여 바르셀로나를 비롯한 유럽 다수 호텔 관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들은 44만 달러 규모 상담(15건)을 통해 11만 달러 규모 계약을 진행 중이다.

처인구 양지면 소재 (주)엑션테크는 화재 발생 시 조기 진압을 돕는 자동소화기를 선보여 나이지리아 기업 Uno Tels와 1000달러 규모 샘플 구매 계

약을 맺는 등 83만 달러 규모 상담(23건)으로 70만 달러 규모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전시가 끝난 뒤 네덜란드 기업 Althen과 암스테르담에서 만나 추가 상담을 하는 등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학면 (주)엑션테크 대표는 "전 세계 각국 바이어들을 한자리에서 만나 기업의 경쟁력을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MWC 전시회에 참가하도록 최고의 지원을 해준 용인시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시는 민선 8기 이상일 시장의 공약인 수출인턴을 이번 전시에서 처음으로 해외 파견해 용인관 참가기업들의 영어 통역과 계약 관련 실무 지원을 도왔다.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단국대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GTEP 사업단)과 협약을 맺고 차근차근 준비해 온 것이다.

김원철 팀플레이어 대표는 "기대 이상의 전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시에서 지원한 수출 인턴의 도움이 컸다"며 "인턴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전문가 수준의 노련함과 적극적인 태도로 현지 바이어와의 연결고리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에 파견된 한 수출 인턴은 "지역 기업들이 전 세계 첨단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쟁하는 모습에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며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뜻깊었고 MWC라는 큰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행복했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전 세계 기업들이 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MWC 2024에서 우리 기업들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이 해외무대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3월 말 동유럽 시장 개척단 파견, 5월 태국 방콕 국제 식품 전시회 참가 등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물밑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효성중공업, GTX연장 최대 수혜단지

GTX-A·C 연장 발표... 코스트코 입점 확정 등 교통,생활 다갖춘 - 오는 11일 특별공급, 12일 1순위 청약 진행... 해당점 제한 및 실거주 의무 없고, 6개월 후 전매 가능

효성중공업이 경기도 평택에서 공급하는 '지제역 반도체벨리 해링턴 플레 이스'가 오는 8일(금)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지제역 반도체벨리 해링턴 플레 이스는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동, 전용면적 84㎡~103㎡ 총 1,209세대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별 가구수는 ▲84㎡A 809세대 ▲84㎡B 240세대 ▲103㎡ 160세대로 전 세대가 전용 84㎡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로 지어진다.

청약일정은 오는 3월 11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화) 1순위 청약, 13일(수)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3월 19일(화)이며, 4월 1일(월)~3일(수)까지 3일간 정당 계약을 진행한다.

그런 가운데 단지는 GTX 연장 수혜 최대어 수식과 함께 전국구 청약 가능,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파격적 금융 혜택, 다시 없을 합리적인

분양가 등 우수한 분양조건을 갖춰 청약에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실제 지제역 반도체벨리 해링턴 플레 이스는 전국 청약이 가능한 아파트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평택시 및 전국 만 19세 이상이라면,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세대주·세대원 모두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거주 의무와 해당점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인근 고덕신도시, 브레인시티(3년)와 비교해 전매제한이 6개월로 짧은 것이 장점이다.

또한 파격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해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먼저 계약금 10%를 1, 2차 분납제로 적용해 초기 부담을 줄였으며, 계약 시에는 500만원만 있으면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여기에 2차 계약금의 경우는 자납 시 연 7%의 예금 금리와 같은 이자공백을 계약자에게 전달하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로 납부 시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여기에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인 만큼 1차 중도금 납입 전 전매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분양가도 합리적이다. 특히 전용면적 84㎡기준 4억원대로 분양가가 책정됐다. 이는 단지 인근의 기 입주 단지가 6억원 후반대에서 7억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2억원 이상이 저렴한 가격이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공급을 진행 중인 인근 분양단지과 비교해도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지제역 반도체벨리 해링턴 플레 이스 분양 관계자는 "지제역 반도체벨리는 최근 발표된 GTX 더블역세권 추진 호재와 세계 최대규모 반도체 벨리 최대 수혜단지, 실수요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며, "견본주택 오픈 전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만큼 청약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신청자 전원에게는 백화점상품권 10만원권을 증정하는 '전국 청약 자랑'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혀 견본주택 개관 이후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지제역 반도체벨리 해링턴 플레 이스와 직선거리로 약 650m(동문 p2후 문기준)에는 세계 최대규모 반도체 벨리 산라인이 조성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위치해 있다. 또, 인근 평택송탄 일산산업단지과 평택장동 일산산업단지가 있으며, 첨단산업단지(예정)와 카이스트 평택캠퍼스(예정) 등도 추진



되고 있어 직주근접 배후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환경도 우수하다. 현재 1호선과 SRT가 정차하는 평택 지제역에는 2025년 수원발 KTX가 개통될 예정이다. 또 최근 정부가 GTX A와 C노선을 지제역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제역 일대 교통환경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와 인접해 초등학교와 유치원

예정부지가 있으며, 상업시설과 홈플러스, CGV와 아주대병원(예정),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예정)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단지 주변으로는 장안천과 수변공원(조성예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제역 반도체벨리 해링턴 플레 이스는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로 조성되는 만큼 그에 걸맞는 커뮤니티 시설도 갖췄다. 단지 내에는 실내 수영장을 비롯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독서실, 작은도서관, 입주민 문화실, 맘스레이션 등 입주주민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제역 반도체벨리 해링턴 플레 이스 견본주택은 경기도 평택시 평택대학교 인근에 마련되어 있다.

양시현/기자

되고 있어 직주근접 배후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환경도 우수하다. 현재 1호선과 SRT가 정차하는 평택 지제역에는 2025년 수원발 KTX가 개통될 예정이다. 또 최근 정부가 GTX A와 C노선을 지제역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제역 일대 교통환경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와 인접해 초등학교와 유치원

전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틀 다진다

마을공동체 활동 318곳, 자원 조사·테마사업 등 최대 2천만원

전라남도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틀을 다지기 위해 지난해보다 많은 518개소의 마을공동체 활동 사업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5일 전남도 마을공동체만들기 위원회를 열어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공기빛깔(씨앗·새싹·열매)' 318개소,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200개소를 선정했다.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다양화와 브랜드사업 개발로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토록 함으로써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3개 유형으로, 씨앗·새싹·열매 단계로 나뉜다. 마을 자원 조사, 마을 계획 수립, 마을 테마 사업에 200만 원부터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민선 8기 공약인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은 주민(단체) 등이 마을의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세대에 반찬 배달, 식사 제공, 긴급 돌봄, 간단한 집수리 등을 통해 안부를 묻고 건강을 돌보는 사업이다.

마을 중심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자생적 안전망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행복드림 돌봄을 위한 사업비 및 컨설팅을 지원하며, 사업 규모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선정된 공동체를 대상으로 3월 중 회계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을 하며, 회계교육을 이수하고 사업 실행 계획이 승인된 공동체는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김선주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마을·돌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 공동체성 회복을 넘어 지역사회 자생적 안전망을 구축해 인구소멸에도 대응하도록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마을공동체 지원 공모사업은 지난 1월 31일까지 접수했다. 공기빛깔의 씨앗 단계는 시군 특성과 자용성 강화를 위해 시군에서 심사·선정했다. 새싹·열매 단계와 돌봄공동체는 주민참여도, 실현가능성, 사업효과성, 지속가능성 및 자립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남도에서 심사하고 위원회를 통해 총 518개 공동체 선정을 확정했다.

선정된 마을공동체 중 2023년 전남도 마을공동체 활동 우수사례로 선정된 문사랑공동체(나주시)는 의병이 활동했던 마을 역사를 되살려 마을 브랜드

를 형성하는 등 '우리마을 기획하기' 사업을, 평촌마을 돌봄공동체(광양시)는 다채로운 귀촌인이 중심이 돼 독거노인 돌봄 등 '지속가능한 행복나눔 봉사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종배/기자



순천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연 최대 240만원 지원!

무주택 전·월세 거주 근로 청년 대상, 월 20만원 최대 1년간 지원

순천시는 청년 근로자와 사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2024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순천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전·월세)를 월 2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순천시 거주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3개월 이상의 근로·사업 중인 자이다.

또한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나 월세(60만원 이하)로 거주하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1인 약 334만원/월)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다.

모집 인원은 93명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인정액비율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공무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 주거 관련 수혜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2일 까지이며 순천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이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순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우리 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준/기자

나주 문스팜(주), 道 청년농업인 창업 스케일업 지원사업 선정

김치 생산시설 현대화 및 컨설팅에 1억5000만원 지원



전라남도 나주시는 관내 농업회사법인 문스팜(주)(대표 김광일)이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공모한 '청년농업인 창업 스케일업(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창업 아이템의 생산비 절감과 시설·장비 구축, 투자역량 강화, 컨설팅, 마케팅·판로개척 등 브랜드 고도화를 지원한다.

나주시 동강면에 위치한 문스팜(주)은 지난 2019년도에 설립됐으며 나주를 비롯한 전라남도 농산물을 재료로 국내산 김치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오프라인 시장뿐만 아니라 네이버 스

터마켓, 지마켓, 옥션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연간 10억원 상당 매출을 올리고 있는 지역 대표 청년농업인 기업이다.

문스팜(주)은 사업 선정에 힘입어 김치 생산시설 현대화, 컨설팅 교육비 등 1억5천만원(도비30%·시비45%)을 지원받는다.

윤병태 시장은 "청년 농업인, 창업인 육성 시책 추진과 지속적인 공모사업 발굴을 통해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며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안정적인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만/기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청기간 : 2024. 3. 11.(월) ~ 3.22(금)

지원대상 순천시 거주, 18세~45세 무주택 청년 노동자·사업자

-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
-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노동 또는 사업 중인 자

※ 주거급여 대상자, 공무원, LH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주거관련 유사 사업대상자 등 제외

지원내용 전·월세 주거비 지원 (월 최대 20만원/12개월)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의처 청년정책과(061-749-4207)

남원시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 협력 강화

제4차 정보연계협의체 회의 추진

남원시는 지난 6일 아동학대 업무 활성화 및 정보 공유를 위해 제4차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학대피해아동 보호와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개최한 것으로, 2023년 아동학대 신고 현황 및 분석 결과, 학대피해아동 사례공유 및 대응 방향, 2024년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운영 방안, 2024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시는 남원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남원시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호관찰소, 남원의료원, 남원시자

족센터 등 8개 기관 총39명으로 구성된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하여 위기 아동 선제적 발굴 및 아동학대 대응기관 간 긴밀한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매월 1회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적절한 보호조치를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각 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유지해 지역 내 아동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함평군, 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운영

5월 말까지 화재, 축제, 해빙기위험, 어린이안전 4개 유형 안전신문고 집중신고

함평군이 올해 5월 말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봄철 재난·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봄철 집중 신고 대상은 산불·화재(불법 소각 등), 축제·행사(인파밀집 등), 해빙기 위험(붕괴, 낙석 등), 어린이 안전(통학로, 놀이시설 등) 관련 총 4가지 유형이며,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안전신문고'란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국민 누구나 포털 또는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군은 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활성화를 위해 대표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활용하여 군민에게 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마을 회관 등을 통해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상의 군수는 "2023년 4월 대형 산불로 함평군에 많은 재산 피해가 있

었던 만큼 군민들에게 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을 적극 홍보하고, 재난·안전 위험요인이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2023년 안전신문고를 통해 1,216건의 안전신고 등을 처리했으며, 남도안전학당 운영, 공공 소화기 보관함 설치, 화재 경보감지기 보급사업 등 군민 안전시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진/기자



강진군 한국민화뮤지엄, 특별전 2건 개최

이정윤 작가의 '균형의 숲', 유순덕 작가의 'POP SHOW' 풍성한 볼거리 '눈길'

전남 강진군 청자촌에 위치한 한국민화뮤지엄에서 3월 7일부터 5월 30일까지 2건의 새로운 현대민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특별전은 이정윤 작가의 '균형의 숲'과 유순덕 작가의 'POP SHOW'로, 한국민화뮤지엄 2층에 마련된 전시실 두 곳에 각각 설치될 예정이다.

이정윤 작가 초청전 '균형의 숲' 전에서는 사슴을 주제로 한 59점의 문헌적인 현대민화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장수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민화 속 사슴은 이정윤 작가의 세계에서 영혼을 대변하는 존재가 되어 관람자를 마중한다. 때로는 정적인 실루엣으로, 때로는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흰 사슴과 신비로운 청록색 풍경의 대비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정체성과 방향성을 찾아 해매는 인간의 삶과 맞닿아 있다.

맞은편 갤러리코어 전시실에서는 민화계 중견작가인 유순덕 작가의 'POP SHOW'전이 진행된다. 독특한 튀는 현대 민화 신작 27점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서는, 민화에 담긴 선조들의 해학을 현대적인 표현력으로 계승한 작가의 센스를 엿볼 수 있다.

돌가루를 이용한 독특한 입체 질감, 강렬한 색상 대비와 진한 윤곽선으로 표현된 호랑이와 닭은 분명히 팝 아트의 모습이지만, 오히려 옛 그림 속 의상스럽고도 친숙한 모습은 더욱 생생히 다가온다.

한국민화뮤지엄에서는 매년 여러 실력파 작가들과 협업하여 다채로운 특별전을 기획 및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화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한국민화뮤지엄의 향후 전시 계획 및 관련 세부사항 문의는 유선 또는 한국민화뮤지엄 홈페이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추윤호/기자

이정윤 작가 초청 기획전

균형의 숲

2024. 3. 7 - 5. 30

한국민화뮤지엄 기획전시실

전북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의 대상자 기준을 확대해 독거노인과 돌봄이 필요한 노인부부 및 조손가구에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응급상황을 실시간으로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 수혜자 확대

화재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며, 이용자의 활동량을 감지해 쓰러짐 등이 의심되는 경우 응급관리요원이 안부를 살피고, 급박한 경우 이용자가 가정 내 설치된 응급호출기 응급버튼을 눌러 119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그동안 65세 이상 홀로 사는 저소득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등 2천 3백 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나, 서비스 대상 범위를 확대해 ▲노인부부 가구 중 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가구, ▲고령의 부모를 노인인 자녀가 돌보는 2인 가구, ▲손자녀와 노인이 함께 사는 가구 등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수혜 대상이 4천가구 정도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독거노인 소득기준이 폐지돼, 고독사 예방 등 돌봄 사각

지대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대상자 기준 확대에 맞춰 지난 2월 15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시·군 간담회를 갖고 올해 사업 방향에 대해 안내했으며, 시·군 및 수행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김석면 노인복지과장은 "이번 대상자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내 안전·안부 확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이 적시에 필요한 응급조치가 제공돼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신안군, '2024 섬 수선화 축제' 다가오는 2백만 송이의 봄꽃 향연

이제는 달려! 선도 주민이 만들어가는 섬 수선화 축제

신안군 지도읍 선도리 일원에서 오는 3월 22일부터 4월 7일까지(17일간) '2024 섬 수선화 축제'가 화려하게 펼쳐진다.

'수선화 여인'이라고 불리는 현복순(91세) 할머니가 30년 전 선도에 정착한 뒤 집 주변에 하나둘씩 심은 수선화가 어느새 선도 일대를 노랗게 물들이며 수선화 정원으로 꾸며지기 시작했다.

계절마다 피고 지는 꽃들은 현복순 할머니의 노력과 사랑으로 외딴섬 선도를 아름다운 선도로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있다.

축제가 열리는 선도에는 13.4헥타르(ha)의 면적에 아를, 핼퍼넬을 포함한 17종의 수선화 구근 208만 구가 심어져 2백만 송이의 수선화가 화려하게 피어 장관을 이룬다.

봄꽃 향기 속에 노란색으로 물들인 특별한 신안을 볼 수 있다.

입장료는 ▲일반 또는 단체는 6천 원, ▲노란색 옷 착용 시 3천 원, ▲노란색 옷 착용 시 50% 할인을 받아 3천 원, ▲어린이, 청소년, 군인 및 조례에서 규정하는 관람료 면제 대상자는 무료로 수선화 정원을 관람할 수 있다.

1004섬 선안 상품권은 일반 또는 단체는 5천 원, 노란색 옷 착용 시 3천 원을 돌려주며 이를 사용하게 되면 섬 주민들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선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된 섬 수선화 축제는 지난해보다 더욱 더 다채로워졌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마을을 더욱 빛내기 위해 주민 참여 조직을 구성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역할을 맡아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참여로 축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며 섬 수선화 축제의 분위

기를 한층 특별하게 만들고 있다.

선도수선화영농조합법인 박영식 대표는 "선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행정 중심의 축제에서 벗어나 주민 중심의 축제로 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며, "섬 수선화 축제를 통해 신안의 아름다움과 따뜻함을 느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노란색 옷 착용 시 입장료 50% 할인 정책을 통해 축제를 더 다양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섬 수선화 축제는 섬 지역 발전과 소득 창출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안군은 1섬 1꽃 테마 정원 조성으로 사계절 꽃 축제가 개최된다. 4월에는 입자도에서 툼립으로 가득한 섬 툼립 축제를 만나볼 수 있다.

김영진/기자



진도군, 진도개 도그(Dog) 스포츠 운영

진도개테마파크 일원...교감·달리기·어질리티와 진도개 학습장 등

진도군이 진도개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연말까지 진도개 도그(Dog) 스포츠를 운영한다.

진도개 도그(Dog) 스포츠는 진도개 학습장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도개의 문화와 인식 개선을 위해 진도개 테마파크 일원에서 진행한다.

평일에는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진도개 도그(Dog) 스포츠를 진행하고 토요일, 일요일인 주말은 오전 11시에 교감, 달리기, 장애물경기 등 주말 진도개 도그(Dog) 스포츠와 진도개 학습장을 운영한다.

주말 프로그램은 ▲사람과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는 교감 ▲진도개의 영민함과 민첩함을 볼 수 있는 달리기 ▲견주와 진도개가 함께하는 장애물경기 ▲강아지를 직접 만지고 배울 수 있는 진도개 학습장 등이 있다.

또한 진도개테마파크에는 상시 운영되는 진도개 홍보관, 사계절 썰매장, 진돌이 놀이터, 미니 동물농장, 어린이 놀이시설 등으로 진도개테마파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간이 조성돼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군의 상징인 진도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진도개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과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진도개 도그(Dog) 스포츠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오는 5월 초,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제10회 진도개 축제를 진도개테마파크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김영진/기자



완도군, '농촌에서 살아보기' 전남에서 첫 시행

신지면 울모래, 군외 스마트 치유 마을에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완도군이 '2024년도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도내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지면 울모래 마을에서 전남도, 군, 마을 관계자, 사업 참가자 등 20명이 모인 가운데 사업 계획 공유, 건의 사항 청취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하기 전 농촌에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함으로써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단순 농촌 체험이 아닌 맞춤형 일자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참가자가 농촌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예비 귀농·귀촌인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완도군은 올해 신지 울모래 마을과 군외 스마트 치유 마을 등 2개소에서 각각 3기수의 참가자를 모집하여 사업

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에서 신지 울모래 마을이 가장 먼저 5명의 참가자를 선정하여 지난 4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참가자에게는 월 최대 30만 원의 연수비를 3개월간 지원하며, 농촌 일자리 체험, 선진지 견학, 선배 귀농인과의 만남 등을 진행한다.

정인호 인구일자정책실장은 "올해 전남에서 처음 시행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참가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완도만의 장점을 살린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완도군은 귀농·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융자), 농어가 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산어촌 어울림 마을 운영, 청년 어촌 정착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양영율/기자



목포시,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사업 선정

전국 19개 지자체 신청, 목포시 포함 8개 지자체 선정

목포시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2024년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하수찌꺼기와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 중 2중 이상을 한 시설에서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특히, 지난해 말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시행되면서, 오는 2025년부터는 공공 부문에서 바이오가스 생산목적이 적용된다.

이번 환경부의 공모 사업에는 전국

19개 지자체가 신청했고, 목포시를 포함한 총 8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환경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의 적정성 및 효과 등을 살펴보고, 부지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소통 여부, 예산 신속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등 사업 추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최종 선정했다.

목포시는 신안군과 광역화 협약을 체결해 목포시 대양동 698번지 일원에 시설용량 180톤/일, 총사업비 703억 원 규모(국비 297억원, 시비 82억원, 민자 324억원)로 공모를 신청한 결과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국고 보조금을 10% 상당 지원받게 되었고, 오는 202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하수찌꺼기와 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처리 과정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를 찌꺼기(슬러지) 건조시설 등에 공급하는 등 주변 시설과 연계해 활용할 계획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은 탄소 저감과 재생 에너지 확보뿐만 아니라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공공 부문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제에 대비한 기반 마련에 큰 의미가 있는 시설이다"며 "앞으로 유기성 폐자원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배/기자



보성군, 보성사랑·아이사랑 7남매 가정 '집다운 집으로' 입주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행복 '가족한' 주거공간 마련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보성군 문덕면 7남매 다둥이 가정에 새로운 보금자리가 마련됐다.

보성군은 지난 5일 보성군 문덕면 운곡마을 7남매 가정을 대상으로 추진된 사랑의 집짓기 '집다운 집으로' 사업을 마치고 입주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랑의 집짓기 '집다운 집으로' 사업은 지난 2023년 11월 7일 보성군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와 보성사랑·아이사랑 업무협약 체결 후 임기차기 아동을 발굴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적정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사업은 단열과 환기가 취약하고 붕괴 위험이 있는 집에 거주했던 주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7남매를 위

해 안전하고 쾌적한 거실, 아동 성별에 따른 방을 배치하고 아이들의 학습 공간으로 2층 옥탑방도 설치하는 등 안락한 주거 공간을 완공했다.

김규용 부군수는 "보성군의 꿈나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민·관이 상호협력·연계가 중요하다"라며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보성군은 관내 주민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연계한 보성사랑·아이사랑 캠페인 모금을 추진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 아동들에게 주거환경개선,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최원영/기자



경북도, '사이소' 소상공인 정기구독 공모사업 3년연속 선정

정기구독 상품 판매 확대로 금년 500억원 목표달성 기대 커

경상북도는 농특산물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사이소'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소상공인 정기구독 공모사업 평가 결과 3년 연속 선정되어 국비 2억 2천만원(지난해 2억 1천만원)을 확보했다.

소상공인 정기구독 사업은 지역 소상공인의 정기구독 시장 진입을 위한 온라인 기반 구축 및 판로 확보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사업비는 소상공인 할인 지원(정기배송, 포인트 구독, 할인쿠폰 등), 온·오프라인 기획전, 상품 마케팅 및 다양한 상생 지원(축제 연동 홍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교육·간담회) 등에 사용된다.



특히, '사이소'는 2022년 전국 지자체를 최초로 온라인 쇼핑몰에 포인트 구독경제 상품을 도입해 성공적으로 안착시킴으로써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사업 우수모델로 선정됐다.

사이소는 현재 77개 사·430개인 정기구독 상품을 100개 사·600개 상품으로 확대 발굴해 소비자 상품 선택의 폭을 넓히고, 능가에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소상공인 정기구독 사업은 사이소 물에서 7만원의 구독 포인트 구매 시 익월부터 추가로 3개월 동안 1만 포인트씩 지급하여 총 10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구매한 포인트는 '사이소' 내에서 원하는 상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기대된다. 김주령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3년 연속 정기구독 사업에 선정돼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소비자 맞춤형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을 발굴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사이소'가 되어 경북 농업대전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지난해 대구방문 외국인 관광객, 전년 대비 376% 증가

외국인 관광객 전년 동기(8만 명) 대비 28만 명 증가한 누적기준 36만 명 기록

대구광역시시는 지난해 해외 타깃 시장별 맞춤형 마케팅활동과 관광 편의서비스 환경을 개선한 결과, 대구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36만 명으로 전년 동기(8만 명) 대비 28만 명이 증가했고, '19년 동기(71만 명) 대비 약 51% 이상으로 회복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대구를 방문한 누적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23년 12월 기준 36만 명을 기록했다.

해외 국가별로는 대만 관광객이 14만 6천 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구미주 관광객 7만 2천 명, 동남아 관광객 5만 5천 명, 일본 관광객 3만 2천 명, 중국 관광객 2만 6천 명 순이었다.

대구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 수도 크게 증가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따르면 대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수는 지난해 12월 누적 기준으로 9만 1천 명을 기록해 전년 6천 명 대비 1,416%가 증가했다.

이처럼 대구방문 외국인 관광객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대구국제공항 신규 직항노선이 증가한 가운데, 해외 미디어 및 현지 방송프로그램 유치로 인한 대구관광 브랜드 확산과 대만·동남아 등 해외시장 다변화 정책을 중심으로 한 해외 특수목적단체(S.I.T) 관광객 유치 및 상품 개발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지난해는 외국인 개별여행객의 불만·불신·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 전문상담 지정(67개소), 교통기점 안내표기 개선, 관광숙박시설 환경개선 지원, 대구여행상담 운영(20개소) 등 맞춤형 관광정보 편의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왔다.

올해는 대구광역시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43만 명으로 설정하고, 대구관광 인지도·호감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해외 관광 홍보 추진과 함께 외국인 개별여행객에게 편리하고 여행하기 좋은 최적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해 글로벌 관광도시로서 인지도를 제고 시킨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대구광역시 방문 외국인 관광객을 부활시키고자 추진하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하나인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요건인 외국인 관광객 10만 명 이상 유치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돼 대구 최초로 관광특구 지정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조경선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앞으로 대구시는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매력의 대구여행 콘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해 수요자 맞춤형 마케팅을 통한 관광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 위케이션 거점센터, 민·관 협력으로 글로벌 디자인 인정받다!

세계 최고 권위 디자인 공모전인 'iF 디자인 어워드' 인테리어 부문에서 본상 선정

부산시는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부산 위케이션 거점센터'가 인테리어 부문(사무공간) 본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하노버에 위치해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독립적인 디자인 기관인 'iF 인터내셔널 포럼 디자인'에서 주관하는 최고 권위의 국제 디자인상이다.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미국의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힌다.

이번 어워드에서는 ▲제품 ▲패키지 ▲커뮤니케이션 ▲컨셉트 ▲인테리어 ▲건축 ▲서비스 디자인 ▲사용자 경험(UX)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등 총 9개 부문에서 72개국으로부터 접수된 약 1만 1천여 개의 출품작이 경쟁을 벌였으며, 각각 전문가들로 구성된 132명의 심사위원단의 평가에 의해 수상작이 선정됐다.

'부산 위케이션 거점센터(동구 아스티호텔 24층)'는 2022년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선정된 부산형 위케이션 활성화 사업의 핵심 업무공간임으로, ▲시원한 전망과 함께 ▲독립된 업무공간 ▲폰투스 ▲회의실 ▲이벤트라운지 ▲미니바 등으로 구성됐다.

이는 사용자 중심의 차별화된 업무공간 기반 시설(인프라) 조성을 위해 시가 사업추진에 앞서 구글, 네이버 등 위케이션 경험 글로벌 대기업에게 조언

을 구하고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해 반영한 결과다.

지난해 2월 개소 이후, 시스템 정비를 거쳐 4월부터 본격 운영되기 시작한 '부산형 위케이션' 사업은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 운영한 지 1년도 채 안 돼 이용객 1천2백여 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냈다.

이용객 대부분은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 소속으로 20부터 30대 정보통신 기술(ICT) 분야가 가장 많고 부산 지사 설립에 대한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어워드를 주관하는 'iF 인터내셔널 포럼 디자인'은 "부산 위케이션 센터는 탁 트인 바다 전망과 효율적인 실내 업무공간 배치로 일의 효율성 향상은 물론 사용자들의 재충전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인구소멸의 대안으로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거점센터를 조성·운영해 공공성을 확보한 센터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는 현재 새로운 근무 트렌드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위케이션과 생활인구 유치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 위케이션 거점센터' 위치 선정에서부터 공간 구성에 특별한 애정을 보인 박형준 시장은 "이번 선정은 브랜드가 가치를 창출하는 도시브랜드 시대



에 위케이션 도시 부산을 인정받는 의미 있는 수상"이라며, "도시의 품격을 만드는 데 공공의 나침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는 요즘, 우리시는 정책 수립의 초기부터 공간기획을 고민하고 상상력과 창의성이 뛰어난 민간과의 협력을 넓혀 보다 더 다채로운 부산을 만들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공간이 '부산 위케이션 거점센터'다"라고 전했다.

센터의 공간기획 및 디자인을 맡은 헤이드 건축사사무소(대표 김석훈)와 건축가 정승아 교수 역시 "인구감소 지



역에 생활 인구 유치를 생기를 불어넣고, 기업하기 좋은 위케이션도시 부산 브랜드 창출에 기여하게 되어 값진 경험이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시장은 "이번 국제 디자인 수상을 통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위케이션 도시 부산의 브랜드로 전략적인 글로벌 홍보 마케팅 추진으로 증가하는 위케이션 수요에 대응하고 국내외 핵심 기업 유치를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희태/기자

청송군, 2024년 지역특성화 재난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

산불 대비 대응훈련

청송군은 3월 6일 '2024년 지역특성화 재난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윤경희 청송군수를 비롯한 권대준 청송 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경찰, 소방, 안전, KT관계자와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대원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왕산면 하하리 야산에서 산불 대비·대응훈련을 실시했으며, 다양한 재난사고 중 우리 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 훈련을 선정하여 재난 민방위부서와 산림부서와 합동으

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실제와 닮은 훈련을 실시했다.

청송군은 군 전체면적의 82%가 산림지역으로서 주왕산국립공원을 비롯해 빼어난 산새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어 산불이 발생하면 엄청난 산림손실이 발생 할 수가 있다.

이에 따라 산불예방은 물론 발생상황을 가정하여 초동대처에서부터 소방차 긴급출동 및 응급구조 그리고 사상자 후송과 응급처치까지 민간과 유관기관의 협조체제로 훈련을 진행했다.

윤근수/기자



한편, 윤경희 청송군수는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산불은 반복된 대응요령 교육과 대비 훈련으로 실제 재난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재난대비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영양군, 2025년 시군합동평가 실적향상 선제적 대응



영양군은 지난 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정성지표 담당담당자 및 담당팀장 28명을 대상으로 2025년('24년 실적) 시군합동 평가실적 향상을 위해 전

문가 초빙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국정 주요시책 등의 지자체 추진상황을 평가·환류하여 국정의 통합성,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매년 실시된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에서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대국민 행정서비스 우수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시군합동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날 교육는 정부업무 평가위원인 김정호 신한대학교 명예교수가 강사로 나서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이해 ▲평가 계획과 분야별 대응방안 ▲정성평가 작

성법 등에 대해 즉답체식으로 진행했다. 군은 이날 정량지표보다 평가배점이 40% 더 높은 정성지표 대응방안 교육 후 상반기 중 정성평가 지표별로 일대일 컨설팅 실시로 우수 사례 발굴과 평가실적 향상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시군합동평가는 우리 군의 행정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그 성과가 군민에게 돌아가는 중요한 평가인 만큼,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경주시, 상반기 전기자동차 462대 구매비용 지원

승용차 최대 1390만원, 화물차는 최대 2118만원 지원

경주시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8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승용차 460대, 화물차 182대, 승합(버스) 7대 등 총 649대의 전기자동차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보급은 상·하반기 나눠 진행된다. 상반기 지원규모는 462대(승용 314, 화물 144, 승합 4)이며, 이달 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하반기는 지원규모는 187대(승용 146, 화물 38, 승합 3)이다. 대당 보조금 단가는 자동차의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승용차 313만원~1390만원, 화물차 399만원~2118만원 차등 지원된다.

단 전기택시 구입의 경우 국비 25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승용차 구매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소상공인 및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화물차 구매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가 추가로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경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기관 등이 해당된다. 신청은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대행한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지원시스템의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이뤄진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의무 운행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한편 경주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

해 2021년 356대(61억1320만원), 2022년 795대(지원금 119억640만원), 2023년 582대(지원금 88억 3930만원)를 지원한 바 있다.

김홍근 환경정책과장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고농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윤타용/기자

경북도, '이차전지 소재산업 중심' 알리고 기업 유치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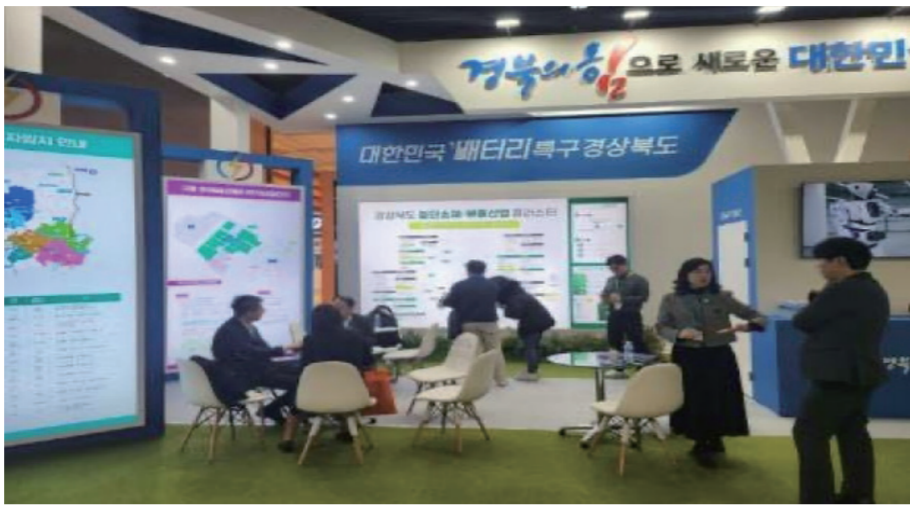
역대 최대규모 '인터배터리 2024'에서 '경북 투자유치 홍보관' 운영

경상북도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2024 전시회'에 경상북도 공동홍보부스를 구성하고 이차전지 산업생태계와 산업단지를 홍보하는 등 기업유치 활동을 한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한국전지산업협회, 코엑스, 코트라가 주관한다. 참가업체는 579개사(1,896부스)로 약 75,000명의 관람객이 예상된다.

경상북도는 이번 전시회에 공동홍보부스를 운영해 포항, 구미 등 경북도의 이차전지 소재산업 거점 중심으로 차별화된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참가 기업에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펼친다.

도는 '이차전지 소재산업 중심 경상북도'라는 주제로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시·군 투자유치 관계자들과 함께 포항 영일만4산업단지,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구미하이테크밸리 국가산업단



지,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등 차별화된 이차전지 투자 환경을 홍보한다.

도와 시군 관계자들은 참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1:1 투자유치 상담회를 열어

재, 도레이 BSF의 분리막 등 소재분야부터 PNT, 아바코, 새빛캠, 에너지머티리얼즈 등 장비·부품·리사이클링까지 대규모 투자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경북도에 소재한 1,800여개의 자동차부품 협력사들은 울산 현대차가 미래전기차의 핵심 생산거점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기존 내연차와 미래전기차 소재·부품 비중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이차전지 소재산업과 미래전기차의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황중하 경상북도 투자유치실장은 "경상북도가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를 제공해 이차전지 소재산업 생태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소재 기업들이 경북에 투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울진군민 건강 지킴이, 한울본부!

한울본부, 울진군 지역주민 종합건강검진 지원 협약 체결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세용)는 6일 울진군보건소(소장 남화모), 울진군의료원(원장 조영래), 강릉아산병원(원장 유창식), 포항성모병원(원장 손경욱)과 '2024년도 울진군 지역주민 종합건강검진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한울본부가 시행하는 '울진군 지역주민 종합건강검진 지원' 사업은 위내시경, 복부초음파, 골밀도검사 등 80여개의 건강검진항목을 지원한다. 지역주민은 울진군의료원, 강릉아산병원, 포항성모병원 중 희망하는 병원에 직접 내원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고 무료 교통편 또한 이용할 수 있다.

울진군 지역주민 종합건강검진 지원 사업은 2013년부터 8,561백만원을 지원하여 총 19,073명의 건강을 검진했다. 올해는 1,188백만원을 투입해 2,640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세용 본부장은 "울진군의료원과 의협약을 통해 신실한 중증·응급환자를 필요시 타지역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는 '울진군민 응급이송 지원 사업' 이 지역

의료 안전망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한울본부는 지역사회의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계속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울본부는 현재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산모 회복 지원, 공공의료기관 간병비 지원, 거주형 노인요양시설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의료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장문화/기자



안동시, 풍성한 봄축제로 도시를 물들인다

봄을 느끼게 하는 벚꽃, 안동 전통놀이 주제로 한 축제 열려

만물이 움트는 봄, 안동시의 축제는 안동벚꽃축제부터 시작된다.

3월 27일부터 5일간 'Spring 팡! 팡!'을 주제로 낙동강변 벚꽃길과 탈춤공원 일원에서 벚꽃축제가 열린다.

낙동강변 벚꽃길은 매년 봄이 되면 수령 50년이 넘는 우리나라 고유품종인 왕벚꽃나무 수백 그루가 만개해 절경을 이룬다. 벚꽃 근각지를 배경으로 관광객들이 다양한 체험과 공연,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다.

벚꽃 터널과 모빌 등으로 이루어지는 벚꽃 포토존은, 흐드러지게 핀 연분홍 벚꽃 물결 아래로 카메라 앵글이 어디를 비추어도 예쁜 사진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스산나는 놀이동산 △플리마켓&체험존 △먹거리존 △벚꽃 이벤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월에는 안동이 가진 전통문화의 특색을 바탕으로 한 이색적인 축제가 열린다. 2023년, 50년 역사의 안동민속축제를 탈춤축제와 과감히 분리하고



'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로 축제의 명칭과 내용을 모두 획기적으로 변신시켰다.

올해는 5. 3. ~ 5. 7.까지 5일간 구안동역과 탈춤공원에서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축제 총감독제도를 도입해 민속

윤근수/기자

예천군, 2024년 3월 지역특성화 민방위 훈련 실시

예천읍 노상리에서 산사태 대비 긴급대피 훈련 시행

예천군은 6일 오후 예천읍 노상리 일원에서 2024년 3월 지역특성화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

올해부터는 민방위 훈련이 연 4회 실시되는데, 이번 훈련은 지역별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 유형을 시·군·구 단위로 선정해 실시하는 지역특성화 재난대피훈련 방식으로 진행됐다.

예천군은 작년 7월 수해 피해를 고려해 산사태 발생을 가정한 긴급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지역주민들과 민방위대, 아마추어 무선연맹, 소방·경찰 등 70여 명이 참여했으며,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으로 상황전파, 사전대피 그리고 재난 발생 후 매몰자 수색, 부상자 응급처치 및 후송 등의 현장 훈련과 생활 안전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훈련은 고령이거나 몸이 불편한 주민들이 경사가 심한 거주지

역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 요원들을 주민과 1:1매칭시키고 훈련이 종료된 후에도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귀가를 확인하는 등 안전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

또한 예천소방서 김용수 소방장이 진행한 생활 안전 교육도 민방위대원들이 직접 소화기를 사용해 보고 심폐소생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재난은 언제 어느 곳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만큼, 이번 훈련을 통해 주민들이 주위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익혀 스스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일/기자

포항시 마인드교육, 포항 MICE산업 발전방향 논의

공무원 500여 명 대상 마인드교육



포항시는 6일 문화동 대강홀에서 포항시 공무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3월 공무원 마인드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포항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포항국제컨벤션센터 건립을 비롯한 포항 마이스(MICE)산업 기반 조성 및 발전 방향과 마이스 해양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를 맡은 대전관광공사 한희정 MICE부팀장은 현재 한국MICE협회 교육인재위원회 위원을 겸임하며 18년째 국제회의 유치업무 경력을 통해

2026 세계태양광총회(WCPEC-9) 등 굵직한 국제회의의 대전 유치를 이끌어왔다.

한 팀장은 다양한 사례를 통한 MICE산업의 개념을 설명하며, MICE산업은 지역사회 전반과 연관된 복합적 산업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식형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포항의 MICE산업 발전을 위해 호텔, 쇼핑, 교통, 문화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 집적과 이차전지, 수소 등 지역특화산업 분야의 국제회의 유치, MICE 인재 양성 등이 필요하다는 점

을 강조했다. 포항시뿐만 아니라 지역 소재한 기관·기업·대학·연구소·마이스 관광업계·시민이 뜻을 모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배성호 총무새마을과장은 "컨벤션센터 건립을 필두로 한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과 미래 도시 경쟁력을 이끌고, 나아가 지역 3대 신성장 분야인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산업 관련 국제회의를 유치해 미래 신성장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태용/기자

영덕고! 다시 한번 역사를 쓰다

2024 춘계 전국 고등 축구대회 준우승

영덕고등학교(학교장 손동주)는 지난 2022년 7월 경남 남해에서 개최된 제55회 대통령 금배 전국고교 축구대회에 참가해 준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이후 1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견뎌 올해 3월에 개최된 2024 춘계 전국 고등 축구대회에 참가하여 다시 한번 준우승의 쾌거를 이루게 됐다.

대회의 시작은 순탄했다. 서울공고와 경기 HSFA U18 그리고 전북 새만금 FC와 함께 E조에 편성되어 2승 1무의 전적으로 16강에 진출했다. 16강에서 서울 경신고등학교를 6대0의 큰 점수

차로 이기며 8강에 안착했다.

8강의 상대는 프롤팀 수원 삼성의 산하 명문 매탄고등학교였다. 매탄 소년단이라 불리며 많은 스타 선수를 배출하고 있는 학교인 만큼 어려운 상대임을 알 수 있었다. 2대1로 끌려가던 경기 종료 막바지 공격수 신윤서(영덕고등학교)의 천금 같은 헤딩골로 동점을 만들어 경기는 승부차기로 이어졌다.

골키퍼 김제희(영덕고등학교) 선방을 시작으로 영덕고등학교는 매탄고등학교에 4대3으로 승리하여 4강에 진출했다. 4강의 상대는 이번 대회의 다

크호스라고 불리는 서산 FC로 결정됐다. 기세가 좋은 팀이었다. 경기는 선제점을 허용하며 경기 막바지로 흘러갔다. 기적은 일어났다. 미드필더 김한빈(영덕고등학교)의 돌파가 상대 페널티 박스에서 태클로 지지당하며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주장 박민서(영덕고등학교)의 페널티킥 성공으로 경기는 동점이 됐고 승부차기로 이어졌다. 결과는 7대6 긴 공방의 끝은 영덕고등학교의 승리로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의 상대는 강호 신평고등학교, 청소년 국가대표가 포함된 막강 스쿼드는 대회 내내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며 결승에 올라왔다. 3월 1일 많은 관중들에 둘러싸여 결승전이 시작됐다. 전반전 종료 휘슬이 울렸다. 스코어는 1대0, 신평고와 대등한 경기를 펼쳤지만 선취점을 허용했다. 결의를 다지고 시작한 후반전, 절호의 찬스가 몇 번

있었지만 대회 막바지인 만큼 선수들의 피로가 극에 달했는지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경기는 그렇게 종료되고 아쉬움을 뒤로하고 영덕고등학교는 다시 한번 준우승의 쾌거를 이루게 됐다.

3월 1일자로 취임한 교장 손동주는 "취임하자마자 큰 선물을 받은 거 같아 선수들에게 고맙고 대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아직 첫 대회인 만큼 좋은 시작을 했으니 다음 대회에서 우승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장문화/기자



영주시, '성공귀농의 메카' 소백산귀농드림타운 입교식 개최

영주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아홉 번째 새식구 맞아 안정정인 영농 정착 지원 위한 'One-Stop 서비스' 제공

영주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소백산귀농드림타운'이 6일 입교식을 갖고 2016년 개소 이래 아홉 번째 새식구를 맞았다.

이날 입교식에는 영주시귀농귀촌연합회와 교육생 및 가족 30세대 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는 귀농 생활의 시작을 기념하고 한해 동안 터전이 될 텃밭 및 비닐하우스를 배정했다.

입교생 30세대의 지역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등 수도권 19세대, 대구, 울산 등에서 11세대가 입교하는 등 대도시 거주주민들이 영주시로의 높은 귀농 열기를 확인했다.

'소백산귀농드림타운'은 영주시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의 농업교육을 거쳐 안정적인 이주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시설은 교육생 숙소, 텃밭, 교육관, 실습농장, 시설하우스 등 예비귀농인들의 농업전문 기술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두루 갖추고 있다.

교육생들은 우수한 귀농 인프라를 바탕으로 앞으로 10개월 동안 관심작목 전문기술교육, 실습, 현장체험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280시간 정도 받게 된다.

시는 입교생들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귀농 정책과 현지 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역 융화 프로그램 제공으로 안정적인 정착 환경을 조성해 '유

턴없는 소백산귀농드림타운'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권영금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백산귀농드림타운 이름처럼 귀농귀촌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교육생들이 지역민들과 화합하고 소통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대가위 등 퇴직예정자들에게 단기교육을 운영해 영주시는 물론 소백산귀농드림타운 홍보와 함께 귀농귀촌 특강을 진행함으로써 귀농귀촌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일/기자



경북도-22개 시·군 함께 저출생과 전쟁 나선다!

영상회의 개최, 도 핵심 사업과 시·군별 저출생 핵심 시책 공유



경북도와 22개 시·군이 저출생과 전쟁에 힘을 합쳐 총력 대응한다.

경북도는 6일 김학홍 행정부지사 주재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22개 시·군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경북도가 지난달 20일 저출생과 전쟁을 공식 선포하고 저출생과 전쟁 전략구상을 발표하고 후, 부서별 세부 실행 과제를 구체화하는 상황에서 시·군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경북도와 시·군의 핵심 역점 시책들을 소개하고, 신속한 정책 실행과 조기 자원 확보, 도·시·군 협력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김 부지사는 최근 발표된 인구통계에서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진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가파른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경북

도가 내놓은 전략들이 빠르게 시·군 현장에서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동네 돌봄 마을'은 도민들의 조기 체감이 중요한 만큼 시·군에서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와 교육청 협업 사업인 '늘봄학교' 및 안정적인 주거 기반 제공을 위한 양육 친화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등을 공유하고, 시·군 실정에 맞는 저출생 극복 대응 모델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올해 도청부터 우선 시행하는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 운영', '아빠 출산 휴가 한 달' 등과 성금 모금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해 가면서 민간으로 점차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시·군에서 제안한 돌봄, 주거 등 역점 시책들은 향후 현장 토론회, 연구용역 등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및 운영 방안 등을 빠르게 구체화하고, 검증에 마친 사업 모델들은 향후 경북 주도 저출생 극복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는 조기 추경, 지방채, 성금, 기금, 민자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재원 확보에 나서는 한편, 우수사례 발굴 및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저출생 극복은 국가와 지방의 명운이 걸린 시급한 사안"이라며 "나라가 어려울 때 앞장섰던 경북의 정신으로, 도와 시·군이 힘을 모아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이기자."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2024년 청송군여성단체협의회 정기총회'개최

청송군여성단체협의회는 3월 4일 노인여성회관 2층 회의실에서 16개의 여성단체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는 지난해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금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하면서 여성단체협의회 결속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영희 회장은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여성단체협의회는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 모두가 행복한 청송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송군여성단체협의회는 16개의 여성단체, 1,53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자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인재육성 장학금 전달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과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 항상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청송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청송군의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2024년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가 출발합니다!

3.6. 19:00, 시청 대회의실에서 발대식 개최... 시 경제부시장, 청년정책네트워크 선발 청년 60여 명 참여 예정

부산시는 6일 오후 7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광희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청정넷으로 선발된 청년 6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발대식은 올해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정넷)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앞으로 활동하게 될 분과 소주제 논의와 분과장 선출을 위해 마련됐다. '청정넷'은 부산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청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청년 문제를 비롯한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제안하는 시민 참여형 협치(거버넌스)다.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온라인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18세부터 39세 청년 75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올 한 해 동안 ▲일자리/창업 ▲주거 ▲문화/복지 ▲교육 ▲홍보/참여 등 5개 분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청정넷'은 오는 12월까지 부산 청년의 현실과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청년 문제 등 지역 현안 공유와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기 위한 분과별 활동,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아카데미와 워크숍 등 공론의 장을 열고 소통할 예정이다. 김광희 시 경제부시장은 "부산 청년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폭넓게 소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청년이 시정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부산에 청년 인재들이 모여 정착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재)영양군인재육성장학회, 2024년도 장학생 선발 신청 접수

(재)영양군인재육성장학회는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어도 주소 제한을 만족할 경우 대학 학력 증진을 위해 3월 4일부터 29일까지 장학금 사무국(영양군청 자치행정과)에서 2024년도 장학생 선발 신청서를 접수한다. 지난 1997년 지역 내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영재장학금'을 지급한 이래 매년 수혜범위를 확대해 온 장학사업은 2024년의 경우 ▲고등학생 장학금, ▲대학생 장학금(반값), ▲대학생 장학금(재학), ▲대학생 장학금(영양사랑) 등 8개 모집 분야로 나누어 총 380여 명의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어도 주소 제한을 만족할 경우 대학생 장학금(재학) 지원 대상자로, 성적제한 없이 정규학기당 50만 원(연간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분야별 신청 기준 및 지급금액은 영양군청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있다. 오도창 이사장은 "영양군의 미래 희망인 지역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자격을 갖추고도 시기를 놓쳐 신청을 못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주위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대구광역시,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대구광역시의 노력 인정받아



대구광역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기관의 자율혁신 추진성과, 민관협력 활성화 등 혁신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자율적인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 혁신평가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2023년도는 혁신역량,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agile, 민첩한) 정부, 국민체감 등 5개 항목, 10개 세부지표를 대상으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단'에서 평가를 시행했다. 대구광역시는 2023년을 시민이 힘

차게 다시 일어서는 대구굴기(大邱崛起)의 원년으로 삼고 미래 50년을 향한 혁신 노력을 지속해 기관의 자율혁신 추진성과, 민관협력 활성화 분야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자율혁신 추진성과 분야의 대표 우수사례인 '공공형 택시앱(대구로택시) 활성화' 사업은 지역 택시업계의 호출 수요로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지원과 승객출퇴료 무료, 마일리지 적립, 안심귀가 서비스와 같이 대구로택시 이용 시민의 편의를 크게 확대한 점에서 혁신평가단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주민,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의 협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지역문제 해결플랫폼 운영', 민관이 함께 지역 대학생의 주거복지 향

상, 교육환경을 개선한 대구행복기숙사 개관, 타 지역 청년 대구 귀환 경로별 지원체계 구축·운영, 자율적인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 도시학교 운영으로 민관협력 활성화 분야에서 혁신역량을 인정받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대구광역시는 기관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굴기(大邱崛起)의 원년으로 3대 도시 위상 회복을 위해 이루어 왔던 혁신성과를 바탕으로 대구만의 참신한 정책, 현장 중심의 정책을 적극 발굴·시행해 시민들이 행복한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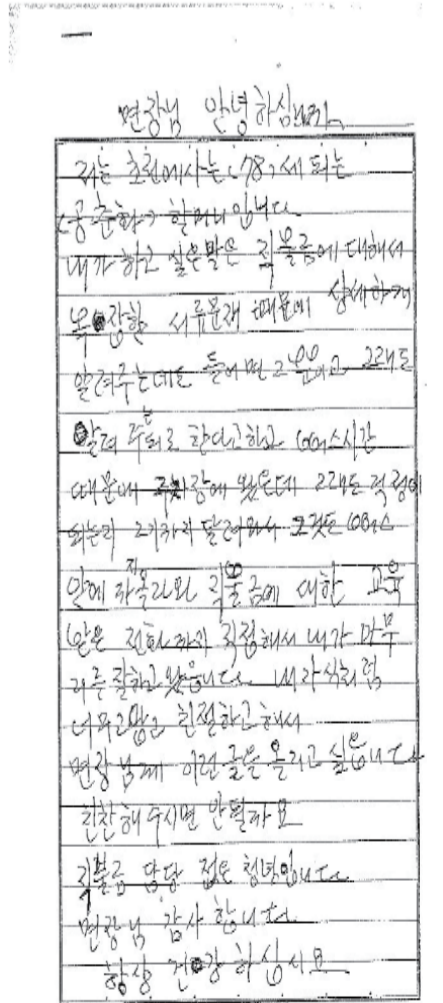
공춘화 할머니가 남해군 미조면에 보낸 감동의 편지

직불금 제도 세심하게 안내해준 직원에 고마움 전해

미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제' 안내를 받은 초전마을 거주 공춘화(78) 할머니가 고마운 마음을 담아 '미조면장'에게 보낸 편지가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미조면 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지난 4일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공춘화 할머니가 그 바로 다음날 '편지'를 보내왔다. 맞춤법이 틀린 곳이 많고 글씨도 빼빼빼돌렸지만 공춘화 할머니가 밤 새 우다시피 하며 정성스럽게 작성한 편지였다.

을 대하듯 친근하고 친절하게 모시겠다"고 밝혔다.

이유준/기자



"저는 초전에 사는 78세 되는 공춘화 할머니입니다."라고 시작되는 편지 속에는 복잡한 서류 때문에 뭐가 뭔지 몰라 혼란스러워 하는 자신을 걱정하며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함께 탑승해 상세히 설명해준 직원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담겨 있었다. 공 할머니는 "내 자식처럼 너무 고맙고 친절하고 해서 면장님께 이런 글을 올리고 싶습니다. 칭찬해 주시면 안될까요. 직불금 담당 직원께는 감사드립니다. 면장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라고 편지를 끝맺었다. 공춘화 할머니는 미조면 초전마을에 거주하고 있으며, 1남 5녀를 키웠고, 남편과 사별 후 혼자 3필지 전답에서 시금치, 마늘 농사를 짓고 있다. 홍성기 면장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가장 큰 보람과 선물은 민원인의 마음을 받는 것"이라며 "미조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을 가족

경남도, 중소·뿌리기업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 개최

6일, 에너지 유관기관 합동 중소·뿌리기업 지원 설명회 개최

경상남도과 한국전력은 6일 오후 한전 경남본부에서 '2024년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경상남도, 한국전력 경남본부,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한국에너지공단, 경남테크노파크, 경남중소벤처지원청, 한국남동발전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하여 기관별 올해 중소·뿌리기업 지원정책을 소개했다. 도내 중소기업은 경남 전체기업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영세하여 에너지 효율과 요금 인상 등에 취약하며, 특히 뿌리산업은 대표적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나 최근 치솟는 에너지 요금 등으로 기업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경남도는 이날 한전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 설명회 개최로 에너지 분야의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기관별 주요 사업으로, 경상남도는 한국에너지공단·한국남동발전과 함

께 중소·뿌리기업의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30개사에 총 4억 5천만 원을 지원한다. 그간 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도내 중소·뿌리기업 총 183개사에 17억 5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연간 31억 원 가량의 에너지비용과 4,500toe의 에너지사용량을 절감하고 있다. 또 기업 원스톱 지원을 위한 상담창구인 '경남기업119'를 통해 기업에 상담과 함께 규제개선 신고를 받는 한편, 1조 1천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을 지원한다. 경남테크노파크는 '경남형 지속가능경영(ESG) 확산사업'을 공모하여 30개사에 지속가능경영(ESG) 컨설팅을 지원하고, 참여업체 중 4개사를 대상으로 에너지효율향상 설비교체비 총 4천만 원을 지원한다. 한국남동발전은 IBK 기업은행과 함께 에너지 효율 향상 기기로 교체하는 뿌리

기업에 탄소포인트 및 동반성장포인트 125억 원을 활용하여 설치투자비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한국전력은 2023년 이후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고효율기기 7개 품목(LED, 인버터, 변압기, 사출성형기, 공기압축기, 펌프, 원심식 송풍기) 교체지원금을 최대 2배까지 상향 조정했으며, 올해는 전동식 사출성형기의 지원 대상용량을 확대한다. 경남중소벤처기업청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소개했다. 캠퍼이스는 기술력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설비교체 비용을 선투자하고 에너지 절감비용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으로, 50억 원 규모의 고효율기기교체 저금리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이번 합동 지원사업으로 도내 중소·세계기업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고효



율 기기 교체 투자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류명현 경상남도 산업통상국장은 "도내 주력산업의 원가경쟁력 확보 및 탄소배출 감축 등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하여 에너지 효율향상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 하다"며 "에너지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기업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재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안전장치 시행된다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작년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신설된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등 일부 규정이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3월 15일 시행되는 개정법에는 인공지능(AI)의 확산에 따른 자동화된 결정 영역에서 국민의 권리를 신설하고, 개인정보를 보다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대량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개정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인공지능(AI) 기술이 국민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됨에 따라, 사람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 정보주체는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또는 검토 요구를 할 수 있고,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실질적인 결정 과정에 사람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결정이 이루어지는 영역에서도 기준과 절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거나 제출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결과를 알려 주도록 했다.

법이 시행되면, 정보주체인 국민이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 중 하나의 역할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인 인공지능(AI)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① 정보주체의 권리가 인정되는 대상 : '자동화된 결정'

'자동화된 결정'이란 사람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분석하는 등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적인 결정을 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한 실질적인 개입이 없거나, 단순 결재 등 형식적인 절차만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실상 사람의 개입 없이 이루어진 결정으로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적인 결정인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추천하고 정보주체가 선택·결정하는 맞춤형 광고·뉴스 추천, 본인 확인을 위한 단순 사실의 확인과 같은 경우는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설명 및 검토 요구 : '자동화된 결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인 국민은 자동화된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또는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설명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결정의 기준 및 처리 과정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이때의 '설명'은 자동화된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개인정보가 자동화된 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간결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의미하므로 복잡한 기술적 작동원리 등을 나열하는 등의 설명을 하도록 한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반영 여부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는 자동화된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해 본질적인 제한·박탈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거

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① 해당 결정을 적용하지 않는 조치를 하거나 ②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렸거나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부는 인정되지 않고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하다.

④ 개인정보처리자의 거절사유 : '정당한 사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설명등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독립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CPO')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규모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는 CPO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CPO 협의회 신설을 통해 CPO 상호 간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CPO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를 고려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정보보호·정보보안 경력을 총 4년 이상(개인정보보호 경력 2년 필수) 갖추고 있는 사람을 CPO로 지정하도록 했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산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당시 CPO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2년 이내(2026.3.14.까지)에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이 없도록 했다.

더불어, 개인정보처리자가 CPO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표자 또는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보고체계 구축, 개인정보 처리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인적·물적 자원 제공 등 준수해야 할 사항을 신설했고, CPO 협의회 구성을 통해 상호 간 공동사업 등 협력 활동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3.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그동안 개인정보위는 매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인정보 관리 수준의 진단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개 및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소속 직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분	현행	개정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법 제37조의2)	· 인공지능(AI)과 같이 사람의 개입이 없는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이 내려지는 영역에서, 열람 및 정정·삭제 등 국민의 권리 보장 수단으로는 국민의 권리 보호에 한계가 발생	·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거부 및 설명 등 최소한의 권리 구체 수단을 보장 ·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사전에 공개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 (법 제31조)	·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는 기업 조직 내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으로서의 전문성과 독립성 부족으로 위상이나 역할 수행에 한계	·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를 지정 · 대표·이사회 보고체계 구축 등 CPO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준수사항 마련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법 제11조의2)	· 기존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개인정보 관리 수준의 진단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한계	· 기존 관리수준 진단에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로 법적 근거를 신설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개 및 개선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기관 및 소속직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대상자 변경 (법 제39조의7)	· 법 개정(23.9.15.시행)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특례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의무대상인 개인정보처리자로 변경되어 대상에 대한 조정이 필요	·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준비금 적립 의무대상 기준을 매출액 10억원, 정보주체 수 1만명 이상으로 조정 · 가담 의무가 면제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단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기준, 평가 시행 평가계획 통보 등 근거 규정을 마련했으며, 평가계획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대상 기관을 방문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4.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대상자 변경

정보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준비금 적립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이 온라인사업자에서 오프라인·공공부문을 포함하는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변경됨에 따라 소상공인 등의 부담은 완화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은 보장하도록 매출액·개인정보 보유량 기준과 의무면제 기준을 정비했다.

중전에는 '연 매출액 5천만원 이상'이고 '이용자 수 1천명 이상'인 온라인사업자가 대상이었으나,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이고 '정보주체 수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로 기준을 조정했다.

또한,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을 명시하여 공공기관(CPO 자격요건 대상기관은 의무대상에 포함), 비영리법인 및 단체, 소상공인으로서 보험 등에 가입한 전문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저장·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5. 기타 개정사항 및 향후 계획

개인정보위의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의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개인정보보호인증(ISMS-P)'·다른 법률에 따라 점검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조사로 인한 현장에서의 부담이 없도록 했다.

또한 국외 이전의 경우 그 법적 근거를, 국외에서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하는 국가명을 개인정보 처리방식에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CPO 자격요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 등 새롭게 신설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기준 및 사례 등을 담은 안내서 초안을 3월 중 공개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 CPO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등 개정사항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과정에서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개정된 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와 제도 활용에 집중하면서 민생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보주체인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尹 대통령,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3월 6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 개혁 주요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먼저 보름 이상 계속된 의사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국민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국민께 감사의 뜻을 표했다.

대통령은 이어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이 모두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체제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비정상적이라며, 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 GDP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지만 이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특히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된 점을 지적

하며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해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한 상황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에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사 양성 확대를 기본으로 하면서,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 의료 및 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 필수 의료 패키지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통계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며 타당하지 않은 주장임을 강조했다. 먼저, 선진국의 학교 당 학생정원은 독일 243명, 영국 221명, 미국 146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77명 수준으로 낮은 편이고, 교수 인력 측면에서도 현재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정원은 평균 1.6명에 불과해 법정 기준인 8명에 비해 전임교수의 수가 턱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의과대학의 역량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의학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기존의 기형적

병원 운영구조를 바로 잡고,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 재편과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의 적극 활용 등을 통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 공보의 및 군의관 투입, 추가 인력 신규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소위 빅5 병원이 중증환자에 집중하고 비중증환자를 지역의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동향 및 대응 상황, 필수 의료 건보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 지자체별 비상진료 운영 상황, 의대 정원 증원 신청 현황 및 후속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이후 시도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과 응급 이송체계 운영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13개 부·처·청이, 지자체에서는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한오섭 정부수석, 이도은 홍보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최광수/기자

경기도교육청
DO THE Goe • 1분전

자율 균형 미래

정책 파세요~

[파세요] 정책 대량구매 합니다

e정책장터에서 좋은 정책 파세요 🍀

- ✓ 대상: 경기도교육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 ✓ 시기: 언제나(상시)
- ✓ 내용: 교육정책 아이디어와 개선안 등 채택되면 금상, 은상, 동상(상금과 표창) 글 내리기 전까지 계속 구해요~

조회 2490055

e정책장터 바로가기

www.epolicymarket.goe.go.kr

강원도, 올림픽경기장 운영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올림픽경기장 운영관리 개선방안 및 국비 지원 근거 마련

강원특별자치도는 3월 6일, 2청사 합동해관 1층 대회의실에서 '동계올림픽경기장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종 용역은 보고회에 참석한 문화체육관광부, 강릉시, 2018평창기법재단, 강원연구원, 각 동계스포츠연맹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완하여 금년 3월에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올림픽경기장의 지난 3년간 운영실적을 토대로 운영수지 분석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운영관리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경기장별 맞춤형 활성화 방안, 일반인 이용을 통한 수익다변화와 경기장 사용자 현실화, 경기장 관리방식 적정

성 등이 포함됐다. 원철호 올림픽시설과장은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경기장의 사후활용 활성화 방안 및 도의 재정 부담해소를 위해 차

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국비 지원 및 국가 운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강호철/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전 직원 대상 청렴 메시지로 '청렴 의지' 표명

청렴 메시지 전달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 실천' 의지 다져

아산시는 지난 2월부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품도 조성 및 반부패 청렴 정책의 일환으로 기관장 '청렴특

독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청렴특독 메시지'는 매월 확대간부회의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관장이 직접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공직자의 청렴 실천 의지를 높이고, 조직내 청렴 문화 정착을 통해 청렴 체감도를 높여 나가고자 추진되고 있다.

박경귀 시장은 이달(3월)의 '청렴특독 메시지'로 울곡 이이의 청렴 명언을 전달하며 "탁한 흉탕물도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아 윗물이 맑아지듯이 공직자는 항상 물욕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어떠한 유혹과 청탁도 이겨내도록 청렴을 생활화해야 한다"며 시민이 신뢰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앞장서주시기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의식

함양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특독 메시지' 외에도 ▲대내 외 청렴 소통창구 확대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적극행정 추진 ▲'청렴 365일'의 약속 다짐 결의대회' 등의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지속하여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원호/기자



충남도, 도·시군 합동 재난·재해 대응 드론 훈련

도, 공주시와 드론영상 실시간 통합관제 연동훈련...체계 강화

충남도는 6일 공주시와 함께 공주시 응진동 백제체육관 일원과 도 드론 통합관제센터에서 '도·시군 드론영상 실시간 통합관제 연동훈련'을 실시했다.

도는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수집 및 관계기관 공유 등을 통해 도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앞으로 매달 2회씩 시군과 합동 모의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훈련은 시군 지역 여건을 고려한 가상의 재난 상황을 설정하고 그간의 피해 이력 등을 반영한 시나리오로 실천과 같이 실시한다.

이날 훈련은 백제체육관 대형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으며, 드론 기술을 활용해 재난 상황 인지, 현장 영상 확보, 임무 부여 등 재난 현장 상황을 주기 확보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초기 대응에 중점을 뒀다.

또 훈련 영상은 재난관리부서와 공유했으며, 각종 재난·재해사고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도의 '드론영상 실시간 통합관제시스템'은 도내 15개 시군에서 촬영한 드론 영상을 도 통합관제실로 실시간 전송받으며, 현장 드론 조종자와 쌍방향 음성 통신으로 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 2021년 국교천수해지역 실종자 수색과 대형구조물 안전 점검 등 재난·재해 현장에서 신속하게 영상을 확보하고 제공하는 데 쓰이고 있다. 최정근/기자



또 재난·재해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중요 정책 결정 시에도 근거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훈련은 드론영상 실시간 통합관제 기술을 재난 현장에 접목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앞으로 도내 15개 시군과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도민이 안전한 충남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 제1차 도-시군 합동 규제혁신특별팀(TF) 회의 개최

2024년 상반기 충북지역 규제 혁신과제 22건 선정

충청북도는 6일 실국 및 시군 등 중앙규제 건의부서, 충북연구원 규제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도-시군 합동 규제혁신 특별팀(TF) 회의를 개최했다.

충청북도 규제혁신 특별팀(TF)은 민선 8기 규제품질 제고 및 현안규제 발굴을 위한 전 부서별 규제관리 책임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 유관기관·전문가, 도-시군 규제개혁 협의체 등 50명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전방위적인 규제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공공시설의 범위에 주차장 포함 등 3건, 청주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매자동차 임지근거 마련 등 3건, 충주시 차량 공동상속인 연락두절 시 폐차 가능 규정 신설, 제천시 식물조직배양 산물의 식품 원료 인성 확대 및 절차 완화 등 2건, 보은군 산업기능요원 배정 시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우선 지원, 옥천군 간이양축시설 농지이용행위(농지)로 개정 등 3건, 영동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자격 및 의무사항 완화, 증평군 화학물질관리법상 법정교육 온라인 방식 전환, 진천군 투자심사 제외대상에 산단단지 기반시설지원사업을 추가 등 2건, 괴산군 축산판매제조가공 지역농산물가공품의 직거래 판매 허용, 음성군 전기사업허가 의견수렴 절차 개선을 통한 처리 기간 단축 등 3건, 단양군 농



어촌민박 승계 신고 등 총 22건을 중앙규제 개선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제출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중앙규제의 수용을 제고를 위하여 도 중점과제 2건에 대해서는 규제개선 필요성, 비용편익분석, 경제적 파급효과 등 충북연구원의 심층분석을 거쳐 중앙에 제출했다.

충북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도부) '1위' 최우수'를 차지하여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 기관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4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올해에도 지역별 중점분야 규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테마별 규제개혁 현장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규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주민 등을 밀착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조직원 기획관리실장은 "지역 곳곳에 숨어있는 그림자 킬러규제를 걷어내도록 강도 높은 현장 중심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충북을 대한민국 규제개혁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늘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소통과 화합, 협치의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www.goyangcouncil.go.kr



서울시, 세계적인 바이오생태계 거점 스위스에서 K-스타트업 임상연구 지원

시, 세계적인 바이오생태계 거점 '스위스 바젤대'와 협력... 현지에서 임상·비임상 연구 지원



2022년 8월, '서울-바젤 스타트업 허브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가한 '타이로스코프'(대표 : 박재민, 2020년 설립)는 갑상선 질환 진단 및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간편하게 갑상선 질환을 진단하고 모니터링하는 타이로스코프의 기술은 스위스 바젤 현지 소아 병원과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2023년 6월,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가한 '니어브레인'(대표 : 이태린, 2022년 설립)은 수술할 환자의 뇌와 뇌혈관 구조를 3D 모델링으로 재현해 뇌수술을 앞둔 의사가 수술연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스위스 바젤대학교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며, 벨기에 루벤 뇌과학 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추진 중이다.

'타이로스코프'와 '니어브레인' 등 서울시가 선발한 K-바이오의약 기업이 스위스 바젤주에서 현지 병원, 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며 유럽 시장 진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스위스 바젤은 노바티스, 로슈 등의 본사와 700여 개 생명과학 기업과 200여 개 연구기관이 위치한 세계적인 바이오산업 생태계의 중심이다.

올해 3년 차인 '서울-바젤 스타트업 허브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외 경쟁력을 가진 바이오기업을 선발해, 매년 바젤주의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바젤대학의 이노베이션실(바젤이노베이션)에서 임상·비임상 연구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결과이다.

2년간 총 15개 기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이 중 니어브레인은 바젤대학교 연구팀과 공동으로 Leading House Asia(취리히연방공과대학 운영)로부터 R&D 사업에 선정됐으며, 타이로스코프는 바젤 현지 소아병원과 공동연구 중이다.

바젤이노베이션실은 스위스 바젤대학교 총장 산하 창업지원 기관으로 창업교육, 자금지원,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스위스 바젤대(바젤이노베이션실)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바젤 현지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가할 바이오·의약기업을 4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바이오·의약 혁신기술과 ▲ 치료·진단 기술 총 2개 분야에서 총 10개 기업을 서울시와 바젤대가 공동 선발한다.

참가 대상은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서울 소재 바이오·의약(레드 바이오) 분야 창립 10년 이내 기업이다.

▲바이오·의약 혁신 기술 분야의 세부 항목으로는 Digital Health(디지털 헬스), AI(인공지능), Blockchain(블록체인), Regenerative medicine & Organoid(재생의약 및 오가노이드), 3D printing(3D 프린팅), Platform technologies(플랫폼 기술)이며,

▲치료·진단 기술 분야의 세부 항목으로는 Oncology(종양학), Immunology(면역학), Metabolism(대사질환), Neurology(신경의학), Cardiovascular(심혈관질환)이 있다.

바이오·의약 산업은 연구개발부터 제품의 생산, 시장 진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글로벌 네트워킹이 필수적이다. 선발된 기업은 약 6주간의 온라인 멘토링, 컨설팅 기간을 갖고, 10월부터 최대 3주간 스위스(바젤대학교)에서 각 기업의 주력 분야(보유기술), 성장단계 등 특성을 고려한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연구지원) 바젤대학교 및 협력기관 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 검증 및 임상·비임상 연구 기회가 제공된다.

(온라인 워크숍 및 코칭·자문) 스위스 소재 바이오 및 메드텍 전문 컨설턴트의 온라인 워크숍 및 1:1 맞춤형 코칭 기회(GAP analysis, IR 피칭 자료, 현지 파트너 발굴 리스트 등)를 제공하며, 스위스·유럽 시장 진입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전략(투자 유치 및 시장 진입) 수립, 스위스·유럽 창업 전략

및 규제 관련 교육을 6주에 걸쳐 온라인 아카데미 형태로 제공한다.

(팀빌딩·네트워킹) 국제시장 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기업(팀) 운영 방안 교육과 노바티스, 로슈 등 글로벌 제약기업과 현지 바이오 분야 관계자 미팅 기회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참여 기업들이 유럽 최대 바이오 박람회(Bio Europe Fall 2024, 11.4.~6, 스웨덴 스톡홀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지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국내에서의 교류만으로는 이뤄지기 어려운 유럽 현지 연구기업·기관과 협력 기회를 발굴할 기회다.

작년에는 상·하반기 각각 5개 기업씩 선발하여 프로그램을 2회 진행했다. 올해는 기존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현지 진출 준비를 위한 충분한 온라인 멘토링·컨설팅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10개 기업을 선발해 각 기업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서울시-바젤대 공동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서울바이오허브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프로그램 참가기업은 국내·외 바이오·의약 분야 전문가의 서류 및 영어 발표평가를 거쳐 선발되며, '기술성', '사업성', '글로벌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참가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한편, 서울시는 2017년부터 홍릉 서울바이오허브를 조성해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의 연구개발,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존슨앤존슨(J&J)·노바티스 등 글로벌 제약사와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기업성장을 지원해 왔다. 특히,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를 중심으로 글로벌 바이오기업과 해외 도시 간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해외 진출·입 중합 지원공간인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가 개관이 예정되어 있으며, 셀트리온, 대원제약 등 국내 대·중견기업 및 글로벌 기업(기관) 간 활발한 협력을 K-바이오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유럽을 대표하는 바이오 클러스터인 '바젤'에서 K-바이오 스타트업이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사업화 노하우를 배우고, 현지 네트워킹을 확대하는 기회를 찾길 바란다."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 검증과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 우리 기업이 독일, 프랑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스위스를 거점으로 유럽 시장 진출의 고두보를 확보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부산시, 2024년 '청년도시재생사 양성 사업' 추진

대학에서 도시재생 관련 과목 이수하고 부산도시공사 주관 심화과정에 참여하면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사업

부산시는 올해도 청년주도형 지역 활성화 및 도시재생을 위한 '청년도시재생사 양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시재생사 양성 사업'은 지역 청년들이 대학에서 도시재생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부산도시공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심화 과정에 참여하면 시가 청년도시재생사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도시재생 사업 다양화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시작해 운영 중이며, 그동안 435명의 청년 도시재생사를 배출했다.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부산도시공사, 지역 7개 대학* 및 말레이시아 켈란탄대학교와 전문적·실전형 도시재생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2024년 청년도시재생사 양성 업무협약'을 6일 체결한다.

올해 협약에는 기존의 6개 대학 외 동의대학교와 말레이시아 켈란탄대학교가 신규로 참여한다.

이번 협약 체결로, 시를 비롯한 10개

기관은 청년도시재생사 양성을 목표로 도시의 지속적 발전과 지역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등을 상호협력하게 된다.

협약서에 따르면, ▲부산시는 청년도시재생사 양성 사업 행정적 지원을 ▲참여대학은 전공강의 개설 및 책임운영 ▲공사는 심화과정 운영 및 역량 강화 지원 등에 협력하게 된다.

대학 전공 분야 교수들이 총괄 운영하는 대학별 전공강의로는 도시재생스튜디오, 도시재생디자인,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 문화산업공간리빙랩 등이 있다.

올해 신규로 참여하는 켈란탄대학교의 경우 창조기술유산학부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도시재생 분야의 미디어 개발 및 제작 교육을 기반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통합적 글로벌 교육을 운영하게 된다.

아울러, 지자체-공사-대학-기업 간 네트워킹을 통해 청년도시재생사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연계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직무체험, 역량강화 활동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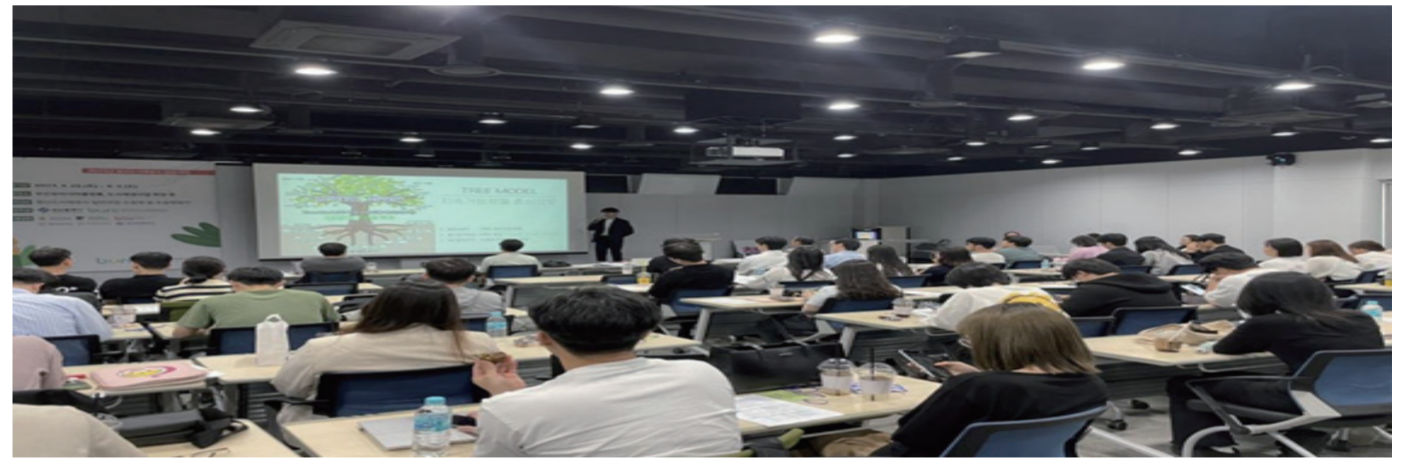
그간 청년도시재생사와 공공기관 및 도시재생전문기업과 연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정규직 125명이 참여해 청년일자리 고용 지원을 하고 있다.

향후 대학별 추천을 통해 공공기관 및 도시재생전문기업과 연계한 청년인턴 근무 등 지속적으로 직무체험 및 개인역량 강화 활동 등을 추진해 지원의 폭을 넓혀갈 예정이다.

김종석 시 주택건축국장은 "청년도시재생사 양성 사업을 통해 부산 청년들이 지역사회 리더로서 역량을 구축해 나가기 기대한다"라며,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청년행복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도시공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현재 활용도가 낮은 원도심 일원의 주민시설 개선을 위해 '15분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거점시설 활성화'를 계획과제로 삼고 심화 과정(청년캠프톤)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희태/기자



since 1978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명예문화관광축제



주최 Jindo | 주관 진도군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전라남도 | 한국관광공사

중국 우호도시 '양저우시' 대표단 군산방문

군산·양저우시 사업투자설명회 등 실리적인 교류 추진

군산시의 중국 우호도시인 양저우(揚州)시 대표단이 3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군산시를 방문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양저우시 인민대표대회 부주임 일행 요청으로 지난 6일 관내 주요 기업인 10여명을 초청하여 『군산-양저우 사업투자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양측은 군산과 양저우시 산업 현황을 청취하고 상호 간의 경제통상 분야 교류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했다.

특히 군산시장과 감담에서는 2015년부터 이어진 양 도시 간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7일에는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하여 새만금 투자유치과장으로부터 새만금 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새만금 산단 입주 기업에 대한 현황을 소개받으며 새만금 산단에 큰 관심을 보였고, 고군산군도 탐방을 끝으로 군산 일정을 마무리했다.

천카이홍 부주임은 "군산에서 보여주시는 현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업투자설명회와 새만금 산단 방문을 통



하여 군산시의 탄탄한 산업 기반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앞으로 양 도시 간의 다양한 교류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양저우시 대표단 군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양 도시 간에 풍성하고 실질적인 우호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으며 "내년은 양저우시와 우호도시 체결 10주년이 되는 해로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폭넓은 교류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양저우시는 인구 458만여명 규모의 중국 장쑤성 중부에 위치한 도시로 2015년 6월에 우호도시 체결을 하여 고운·최치원 선생을 매개로 '군산-양저우 최치원 학술세미나 개최', '새만금 문화학당 개설' 및 '군산-중국 자매우호도시 교류회 개최' 등으로 활발하게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김현태/기자

경북교육청, 경북교육사랑카드 적립금 16억 1,670만 원 조성

경북교육사랑카드 교육재정 확충에 기여

경북교육청은 6일 분청 3층 접견실에서 NH농협은행 경북본부(본부장 최진수)와 경북교육사랑카드 적립금 전달식을 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난해 각급학교와 산하기관, 교직원에게 경북교육사랑카드를 사용해 모은 적립금 16억 1,670만 원을 NH농협은행 경북본부로부터 전달받았다.

경북교육사랑카드는 경북교육청이 2003년부터 NH농협은행, BC카드사와 협약을 체결한 법인. 개인카드로, 이번에 전달받은 적립금은 경북교육청과 산하기관(학교)의 법인카드 이용액의 일정 금액(카드 사용액 대비

0.2%~1%)과 교직원의 개인카드 신규 발급에 따른 일정 금액(신규 발급 카드 수×1만 원)을 적립해 조성된 것이다.

올해 실적은 지난해보다 6,980만 원 증가한 16억 1,6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전달받은 적립금은 학생복지 증진 사업 지원과 교직원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재원으로 사용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사랑카드는 교육 가족의 관심 속에서 어려운 학생을 돕고 세입 재원을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교육 가족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울진교육지원청, 2024 학교급식 기본방향 전달연수 실시

2024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전달 및 청렴도 향상 연수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은 지난 3월 6일에 관내 초, 중, 고등학교 영양(교)사 20명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전달 및 청렴도 향상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2024 학교급식 기본방향의 주요 변경사항 전달 및 개학기식 중독 예방 및 위생·안전 관리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전달했으며, 이에 더해 학교급식 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

한 자체 실천 방안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 됐다.

한편, 2024. 3. 1.자로 울진교육지원청에 부임한 김진탁 교육지원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영양(교)사를 포함한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 표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문화/기자



영덕교육지원청, 2024년 재난 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

영덕교육지원청이 3월 6일 오후 2시에 30분간 재난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며 인접 국가에서 지진 발생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 피해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 현황 및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교육하여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지진 발생 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했다.

윤인한 교육장은 "이번 지진 대비 민



방위 훈련은 지진 사례 및 발생 시 행동요령 등 교육을 실시하여 지진 피해를 최소화해 중점을 두었고 앞으로도 재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강

화하기 위해 반복적인 대응요령 교육 및 대피 훈련을 실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장문화/기자

경북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직통번호 '1395 콜센터' 운영

교육활동 침해 1395로 바로 신고하세요



경북교육청은 3월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침해 신고 전국 단위 '1395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교권 침해 직통번호 '1395'는 교육활동 침해 신고, 심리상담, 법률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신고와 상담 등이 가능하며, 카카오톡 채널 '1395'를 활용한 문자 상담도 가능하다.

주요 상담 내용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접수와 피해 교원 관할 교육지원청.소속 학교 연계 △교육활동보

호센터 마을 건강.법률상담 등 지원 안내와 담당자 연계 △악성 민원 등 대응 교육지원청 통합민원 팀 연계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안내와 담당자 연계 △교원안심공제(보험)사업 안내 등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권침해 직통전화 '1395' 개통으로 교육활동 중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즉각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라며,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고양교육지원청, 공유학교 업무협약 체결, "학생이 원하는 배움 제공 노력"

고양 공유학교, 원하는 배움이 다(多) 되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3월 6일 고양교육지원청 누리마루에서 공유학교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체결 대상은 공유학교 협력 기관인 서울YMCA고양국제청소년문화센터와 고양시청소년재단의 토담청소년수련관, 성사청소년문화의집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고양교육지원청 서영희 학교지원국장과 각 기관 대표는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원하는 배움을 할 수 있도록 각 주체가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고양교육지원청은 서울YMCA고양국제청소년문화센터와 함께 '고양 스포츠예술타임학교'를 운영하며 토담청소년수련관, 성사청소년문화의집과 함께 '고양 미디어 미래학교', '고양 미래과학 상상학교', '고양 갤럭시 항공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고양교육지원청 고효순 교육장은 "고양 공유학교는 지역과 협력하여 우리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원하는 배움



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또한 공유학교가 학생들이 원하는 배움이 다(多) 되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영기/기자

부산 직업교육 혁신지구, 교육부 평가서 우수지구 선정

평가 결과 후속 사업 2026년까지 운영 가능해져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직업교육 혁신지구 우수지구로 선정돼 오는 2026년까지 교육부로부터 약 1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후속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부산 등 10개 지구를 대상으로 운영해 왔다.

지난 2월 교육부는 부산, 대구, 인천, 충남, 경남 등 5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 재지정 여부를 평가했다. 그 결과 부산교육청은 우수지구로 선정돼 3년간 후속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

고, 평가대상 지구 중 유일하게 예산 지원도 받는다.

부산교육청이 부산시와 전국 최초로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를 운영한 점, 지역 핵심 산업 인재 양성 체계 구축과 선취업·후학습 성장경로를 마련해 연간 200여 명의 지역 밀착형 인재를 양성한 점 등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우수지구 선정은 계기로 시교육청은 부산시와 함께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재 유출 등 위기를 직업교육으로 극복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직업교육 혁신지구 후속 사업 운영은 지역인재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고, 부산에 정주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부산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직업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수원특례시

모바일 시민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앱 다운로드

Google Play | App Store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은 정책이 됩니다.

시민의 손으로 수원을 만들어갑니다.

제안토론

설문투표

새빛돌봄

성북구동선동,1인가구에'안심파트너'연계로고독사막는다

안부확인이 필요한 저소득 1인 가구에 주민센터 직원을 '안심파트너'로 지정해 대상자 특성에 맞게 안부확인 실시



서울 성북구 동선동주민센터가 3월부터 취약계층 1인가구 대상으로 '안심파트너'를 지정해 안부 확인을 시작했다.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등 위험에서 주민들을 보고하고자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동선동은 성북구에서도 1인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성북구 1인가구 비율 42%, 동선동 1인가구 비율 69%, 2024.2월 기준)으로 최근 늘어나고 있는 고독사의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동 자체적으로 안부 확인 계획을 수립했다.

동선동주민센터에서는 취약계층 1인가구를 분석하여 안부 확인이 필요하나 서비스가 미연계된 대상자 55명에게 권역별로 동주민센터 전 직원을 안심파트너로 지정해 상시 안부 확인 체계를 구축했다.

지정된 안심파트너는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가정방문 또는 양방향 문자 서비스 등으로 안부 확인을 하며, 필요에 따라 해당 권역 복지 담당 직원이 추가적인 복지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심파트너 지정과 더불어 동선동은 복지대상자 1인가구에 대해 AI 안부 확

인서비스, 건강음료 지원, 돌봄서비스, 밑반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자원을 연계해 대상자 274명 전원 돌봄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김00(남, 46세)은 동선동주민센터 '안심파트너' 방문에 대해 "연락하는 가족과 친구가 없이 홀로 외롭게 지냈는데, 주민센터 직원이 직접 방문해주고 필요한 정보도 제공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안심파트너를 통해 새로운 관계가 맺어져 든든해진 기분이다"라고 말했다.

동선동주민센터 관계자는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저소득 1인 가구에 '안심파트너'를 연계한 촘촘한 안부 확인을 통해 위기 상황을 적시 발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고독사 등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사라져가는 동물에 대한 기록' 특별전시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이 박물관 내 1층 특별전시장에서 지난달 27일 시작해 오는 5월 31일까지 '사라져가는 동물에 대한 기록' 특별전시를 개최한다.

멸종위기 동물을 디자인 그래픽으로 표현한 작품과 7종(알락꼬리 원숭이, 수리부엉이, 오리너구리, 사막여우, 다람쥐 원숭이, 북극여우, 슈가글라이더)의 표본을 함께 구성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성실화랑'은 동물을 초상화 형태로 기록해 그 존재와 상실을 알리는 그래픽 디자인 그룹으로 2011년부터 활동해 오고 있다.

박물관은 향후 특별전시와 연계한 과



학강연을 열어 멸종위기 동물과 보존에 대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함께 걷고 비만 예방해요! 광진구, '가볍게 운동실천 챌린지' 운영

11일부터 한 달간, 광진구민 및 관내 직장인 대상 비대면 걷기 프로그램 진행

광진구 보건소가 비만 예방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의 올바른 건강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가볍게 운동실천 챌린지'를 운영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매년 3월 '세계 비만 예방의 날'을 맞아, 전국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방식의 건강생활 실천을 홍보하고, 대국민 '비만 예방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구는, 합동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는 비대면 걷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광진구민 또는 관내 직장인이면 누

구나 참여할 수 있다. 10만 보 걷기 완료 후, 25일부터 다음 달 15일 사이에 카카오톡 채널(광진구보건소 운동교육실)로 인식사항과 10만 보 걸음수 달성 사진, 운동 모습 사진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인증은 걸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만보기 앱이면 종류에 상관없이 활용 가능하다. 한편, 구는 챌린지 달성 인원 중 100명을 추첨해, 소정의 성공물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누구나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은, 비만 예방뿐만 아니라 각종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올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비만 예방 및 신체 운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서초구,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유공납세자 표창 수여

구, 6일 '2024년도 서초구 유공납세자 표창 수여식' 개최해 유공납세자 15명 표창 수여

서울 서초구가 제58회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아 6일 '2024년도 서초구 유공납세자 표창 수여식'을 열었다.

구는 지난 10년간 체납 사실이 없고, 8년간 연 2건 이상의 납부 이력 있는 모범납세자 18만명 중 구 재정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지방세심의회를 거쳐 '유공납세자' 15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유공납세자는 법인 3개사(산산토건 주식회사, 정보통신공제조합, 대한건축사협회)와 개인 12명으로,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구청장이 표창을 수여했다.

표창을 받은 안상철씨는 "내가 납부한 세금이 사회적으로 순환되어 어려운 곳까지 닿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납세자에게 더욱 동기부여가 되도록 서초구가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해서 행정을 펼쳐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공납세자에게는 서울시 모범납세자 기본혜택과 더불어, ▲서초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 면제 ▲서초수련원 및 서초휴양소 10박 무료이용혜택 ▲서초문화재단 주관 공연관람권 2매

등의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매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구민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 구 발전에 중요한 동력을 만들어 주셨

다고 생각하고, 재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41만 서초구민들이 행복하고 머물고 싶은 서초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홍수/기자



성북구 패션봉제공동브랜드 URZ(유어즈) '친환경' 컨셉 2024 신상품 출시

'In Nature (인네이처)' 컨셉의 신상품 화보 공개

서울 성북구와 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회장 유지용)가 함께 운영하는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에서 성북구 공동브랜드 'URZ(유어즈)'의 2024년 봄·여름 신상품을 출시했다.

이번 신상품의 주제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 양식을 제안하는 'In Nature'로 친환경 캠페인다운 그래픽 티셔츠와 유기농·재활용 소재를 사용한 다양한 신상품을 선보인다. 또한 자동 재단 후 남은 원단을 활용한 '새 활용 파우치'를 행사 사은품으로 제공해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에게 지속 가능한 환경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상품 개발은 공개모집을 통해 참여업체를 선정했다. 성북구 관내 패션 봉제 소공인의 일감 연계와 디자인 가치 향상을 위해 신진 디자이너 2

인과 협업을 마련한 신상품으로 더욱 의미가 깊다.

유어즈는 신상품 주제에 맞게 캠핑이나 여가활동, 야외활동 등 자연에서 활동하기에 편하고 실용적인 티셔츠와 맨투맨, 원피스 등을 합리적인 가격대에 출시한다. 뉴베이지 아이템들은 총 7가지 색상을 준비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 유지용 회장은 "2024년에는 중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로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채널을 확장해 유어즈를 소개할 예정"이라며 "센터 내 열프레스기를 구비해 고객들은 물론 성북구 디자이너와 소공인들도 그래픽을 직접 인쇄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봄·여름 기획상품으로 개발된 모든 상품은 유어즈샵 누리집과 네이

버 쇼핑, 서울소품 디자이너 쇼핑몰, Hmall, 롯데온, 쿠팡, 바바더닷컴 등 다양한 온라인몰을 통해 전시 판매된다.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1층에 위치한 에스플러스라운지(S+Lounge)에서 오프라인으로도 만날 수 있다. 유어즈는 상품 출시부터 3월 말까지 1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새 활용 파우치'를 증정할 예정이다.

강성원/기자



꼭지 하나 달렸을 뿐인데... 청송사과 더욱 신선합니다

11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청송사과는 올해부터 꼭지를 치지 않습니다. 꼭지 달린 사과는 더욱 신선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꼭지를 치지 않으면 일손이 크게 절감돼 전국적으로 연간 660억원의 인건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만족하는 그날까지 청송사과는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대한민국 사과의 표준, '명품' 청송사과.





www.yyg.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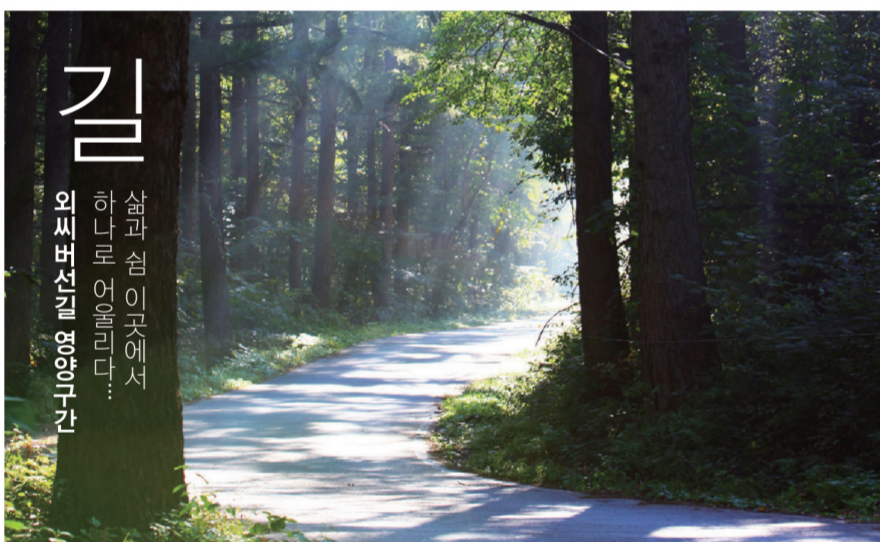
영양 들여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ZOO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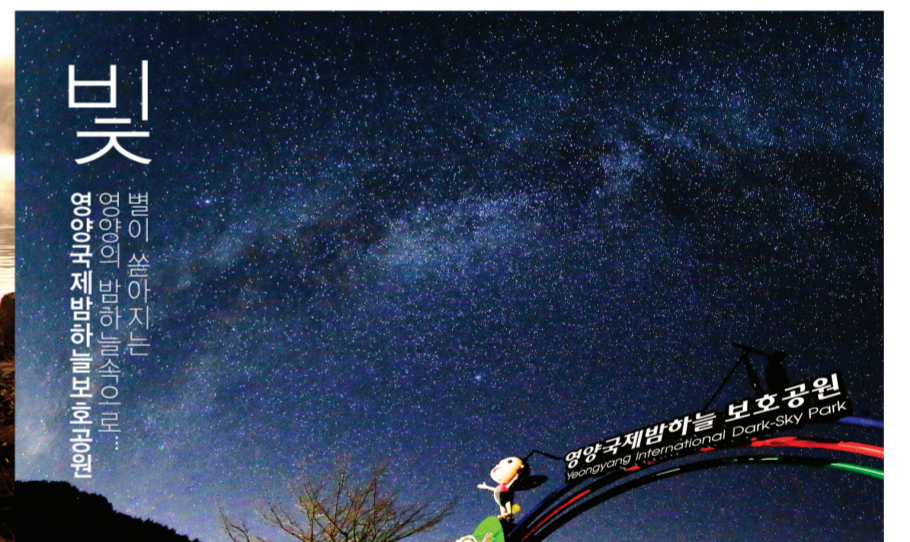
길

살과 숨이 곳곳에서
아름답게 숨어있고...
의외롭게 영원이니



물

영양의 평온하고
은밀한 아름다움...
영양이 숨겨진 곳이니



빛

별이 쏟아지는
영양이 반짝이는 밤...
영양이 빛나는 곳이니



얼

시공간의 대가
영양서식지



맛

사백년 이어온
반가이레시피...
장계향의 음식다미방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품이 깃들다...
영양서식지



숲

한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실마을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_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_음식다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_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